

SGRA REPORT

SGRA 보고서 No. 101 한국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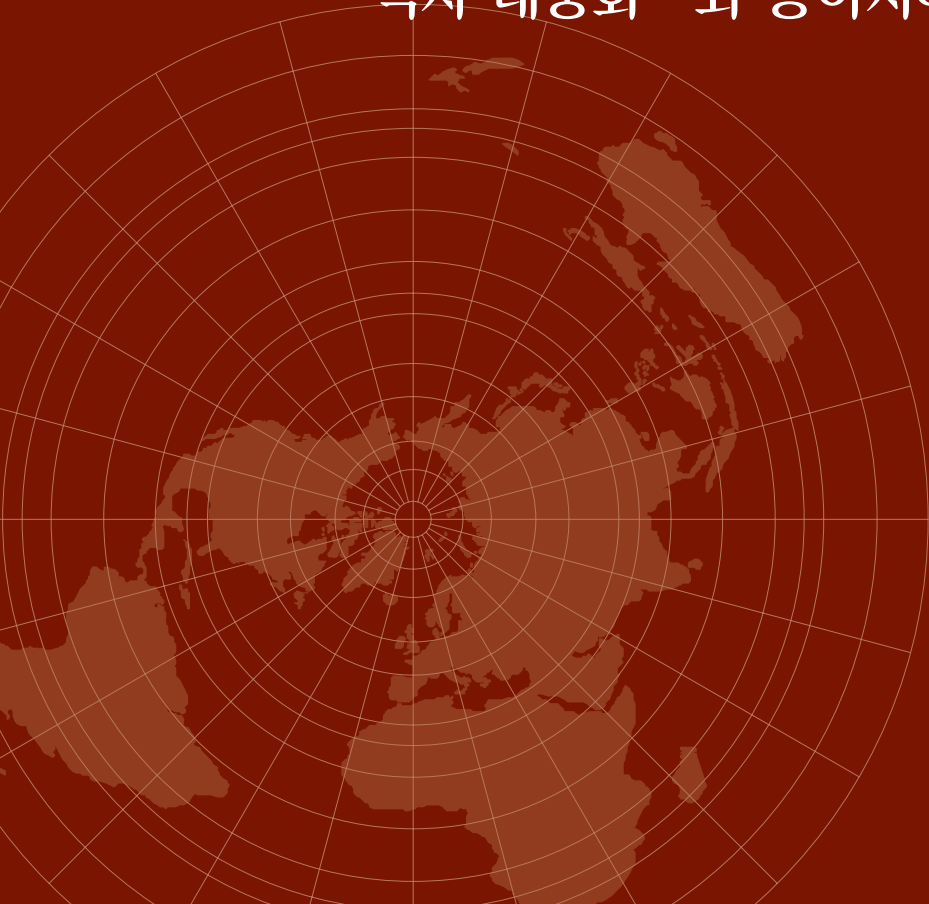
NO. 101

ISSN 1346-0382

제 69 회 SGRA 포럼

제 7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역사 대중화’ 와 동아시아의 역사학



제 69 회 SGRA 포럼

제7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역사 대중화’ 와 동아시아의 역사학

■ 개최 경위

본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자국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각국 연구자들의 대화 및 교류를 목적으로 201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6회 개최됐다. 국경을 넘어 수많은 참가자가 모여, 각국 국사(國史)의 현상황과 과제, 개별적인 실증연구를 둘러싼 논의와 교류를 이어왔다. 제5회(2021년 1월 9일) 및 제6회(2021년 9월 11일)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속에서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온라인 개최를 시도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할 수 있었다.

금번은 새로이 ‘역사대중화’를 다뤄, 문제제기와 3개국에서의 지정토론을 시작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지금까지 확대해 온 참가자들의 연대를 한층 더 깊게 하고자 했다. 또한 원활한 대화를 위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마련했다.

■ 개최 취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만연이 이어진 가운데, ‘국사들의 대화’에서는 온라인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다. 다만 이벤트 개최 환경의 개선이 당분간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종래 참가해온 사람들 간의 대화를 심화하는 데 중점을 둔 기획을 준비했다.

주된 목적은 각국 역사학의 현상황을 둘러싸고 국사 연구자들이 가진 고민을 서로 나누고, 각국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여, 앞으로의 대화를 활성화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고민은 실로 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금번에는 그 중에서도 각국 사회정세의 변모, 다양한 미디어, 특히 인터넷의 급속한 발달 하에서 새로운 수요에 맞춰 역사에 대한 언설이 다양한 형태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국사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역사에 관심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지 못하고 기존 역사학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위기의식을 구체적인 논제로 설정했다.

공통적인 배경이 있다고 하여도 각국의 사회적 변화 양상에 따라 구체적 상황은 다종다양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우선 이러한 상황인식을 ‘역사대중화’라는 말로써 묶어낸 뒤 각국의 현상황을 보고하고, 연구자 각각의 고민과 타개책을 가감 없이 논의하는 장을 마련했다.

SGRA는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SGRA)는 선량한 지구시민 실현에 대한 공헌을 목표로 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소재지인 도쿄도 분쿄구 ‘세키구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SGRA는 일본 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하고 아쓰미 장학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외국인 및 일본인 연구자가 중심이 돼, 현대 사회의 과제에 대처하는 연구와 제언을 포럼 및 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폭 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한 국제적, 학제적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다국적 연구자가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해 다면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고찰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

SGRA 포럼 등의 공지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이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entry/registration_form/)에서 자동등록 하시면 됩니다.

제 7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역사 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



일시 | 2022년 8월 6일 (토요일) 오후 2 - 5시 (한국시간)
방법 | 온라인
주최 | 제7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가능성 실행위원회
공동주최 |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제 1 세션	[종합사회 : 리 언민 (李 恩民, 오비린대)]	
	시작하며	5
	리 언민 (李 恩民, 오비린대)	
	개회취지	7
	펑 하오 (彭 浩, 오사카공립대)	
【문제제기】	‘역사 대중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봅시다	11
	한 성민 (韓 成敏, 고려대)	
【지정토론1 (중국)】	내가 접한 퍼블릭 히스토리	19
	정 제시 (鄭 潔西, 원저우대)	
【지정토론2 (일본)】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전문가의 현위치와 경계	23
	무라 가즈야키 (村 和明, 도쿄대)	
【지정토론3 (한국)】	한국의 ‘공공역사학’의 현황과 과제	27
	심 철기 (沈 哲基, 연세대)	
【코멘트】	지정토론을 듣고	29
	한 성민 (韓 成敏, 고려대)	

제 2 세션 [모더레이터 : 남 기정 (南 基正, 서울대)]

자유토론

31

논점정리 : 류 지에 (劉 傑, 와세다대)

패널리스트 : 문제제기자, 토론자, 국사대화 프로젝트 참가자

제 3 세션 [종합사회 : 리 언민 (李 恩民, 오비린대)]

총괄

47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도쿄대 명예교수)

폐회사

51

조 광 (趙 珧, 고려대 명예교수)

강연자 약력 54

후기를 대신하여

김 경태 55

참가자 목록 58

※동시통역

일본어⇄중국어 : 덩 리 (베이징대), 송 강 (베이징외국어대)

한국어⇄일본어 : 이 헤리 (한국외대), 안 영희 (한국외대)

중국어⇄한국어 : 김 단실 (프리랜스), 박 현 (교토대)

제1 세션

시작하며

리 언민

李 恩民, 오비린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홍용일(도쿄대)]

한국, 중국, 일본 및 기타 국가,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친구들, 동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중·일·한 국사의 대화 가능성' 7차 회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전 이 '대화'에 참석하셨던 분들도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처음 참석하신 분들께도 환영인사를 드리며 계속해서 저희 활동에 관심을 갖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의 주최자는 공익재단법인 아쓰미국제교류재단입니다. 이하 아쓰미재단이라 약칭하겠습니다. 아쓰미재단은 삼국 역사학자를 중심으로 다양한 국가 및 지역 역사학자들이 참여한 대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 지금까지 6회, 이번이 7회째입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역사 대중화"와 '역사학'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일한 세 나라의 젊고 유망한 학자들을 초청했습니다. 다양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분들인데, 강연도 하고 코멘트도 하고 토론에도 참가했습니다. 모두 역사학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신진 학자들입니다. 또 평등한 대화를 위해 '교수'라는 호칭보다는 일률적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소개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회의이고 동시통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실에서 수업할 때보다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말씀해주기를 바랍니다. 매우 어려운 키워드를 사용한다면, 되도록 채팅창에 모국어로 남겨주십시오. 채팅창의 전문번역팀이 바로 3개 언어로 번역해줄 것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동시통역과 문자번역팀이 따로 있습니다. 만약 채팅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종이에 적어 화면을 통해 보여주셔도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일본과 한국 시간으로 오후 2시, 중국 시간으로 오후 1시부터 3시간 정도 진행될 것입니다. 3개 발표가 이어질 텐데, 첫 번째 세션은 제가 사회를 맡습니다. 중일한 3국 학자들이 발표와 코멘트를 해주십니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대 남기정 선생님께서 사회를 맡습니다. 자유롭게 발언하고 토론할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세션은 제가 다시 돌아와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미타니 선생님과 조광 선생님 두 분께서 오늘 회의를 총괄하고

종합적인 논평을 해주시겠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이렇고, 관심이 있다면 회의가 끝난 후 '교류회' 라는 간단한 의견 교환 모임에도 참가해주시요. 여러분께서는 자유롭게 채팅 메시지를 남길 수 있고 온라인 회의장에 출입 가능합니다. 그럼 본 강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개회취지

평 하오

彭浩, 오사카공립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홍용일 (도쿄대)]

선생님들, 동료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리 선생님이 소개해 주신 오사카공립대 경제학과 교원 평하오입니다. 이번에 조직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의 취지를 설명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영광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이번 회의가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에서 조직한 중일한 국사의 대화 가능성과 관련된 학술 활동이자, 오늘로 제7회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는 저희들의 오랜 친구들뿐만 아니라 처음 초청한 학자도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2분 정도의 개회 발언을 통해 간단하게 지난 국사 대화 활동을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아까 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국사 대화는 2015년 시작되었습니다. 중·일·한 동아시아 3국의 역사 연구자들, 특히 국사 분야 연구자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3국의 역사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취지가 3국 간의 이른바 ‘역사문제의 해결’ 과 더불어 화해를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회의는 기타큐슈시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조광 선생님, 중국의 거자오광 선생님, 일본의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 그리고 각국 국사 연구 분야의 권위 있는 학자들이 국사 대화 가능성에 대해 각자의 생각을 피력했습니다.

거자오광 선생님의 제안으로 동아시아 역사 과정에 영향을 준 역사적 사건들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두 차례 열렸습니다. 두 번째 회의는 ‘13세기 몽골제국의 형성과 동아시아 지역 확장’ 이라는 주제를, 세 번째 회의에서는 ‘16세기 말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의 조선 출병 문제’ 를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그후 시점을 근대로 돌려 제4회에서는 ‘19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 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회의가 끝난 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폭발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는 고민할 여지없이 ‘전염병 유행’ 을 제5회 주제로 설정했습니다. 대면 소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온라인 개최를 시도했고, 이마니시 이사님, 사무국 미야케 님, 그리고 동시통역 선생님들과 다른 관계자분들의 면밀한 준비를 통해 성공적인 웹세미나가 개최되었습니다.

전염병 유행에 대해 논의할 때, 인간의 이동과 전염병 유행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또 오늘날 현대 정치가 주목하는 사회 문제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각자의 연구에서 출발해, 최근 몇 년

동안 사학과와 인문사회과학 분야가 주목했던 전염병이라는 관심사를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6회의에서는 사람의 이동을 주제로 '사람의 이동과 경계, 권리, 민족'의 관계에 대해 토론했습니다. 제6회까지 모든 주제는 조직위원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였는데, 다음 회의 때에는 지금까지 '국사 대화'에 참여했던 모든 학자들이 새 기획에 적극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몇몇 젊은 학자들에게도 의견을 구했고, 모든 제안들이 매우 흥미롭고 토론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조직위 내부에도 각자 주제에 대한 선호도가 달랐지만, 오랜 논의 끝에 오늘 회의 주제를 '역사의 대중화와 동아시아 역사학'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제안은 오늘 발표자이시기도 한 한성민 선생님께서 나온 것입니다. 한 선생님은 오늘날 우리 역사 연구자들과 일반 대중과의 대화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자가 어떻게 이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할 것인지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많은 학자들은 그저 각자의 전공 연구에 몰두해왔을 뿐, 이러한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고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국사 대화' 프로젝트는 첫 대회부터 일반적인 연구회처럼 학문적 교류를 촉진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자들 간 합의에 대해 어떻게 사회로 피드백할지 특별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학자들 사이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일반 사회의 비연구자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지는 또 다른 과제였고, 실제로 매우 어려운 일임을 실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문제의식은 주로 역사서 집필, 특히 역사교과서 집필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한 선생님의 이번 문제제기는 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현대 사회의 일부 비전문가들이 무책임하게 역사를 설교하는 문제를 짚었습니다. 곧 발표자 선생님들이 자세히 분석하겠지만, 그 중 하나는 기술 측면입니다.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뉴미디어 발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의 공공권은 역사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안이하게 역사를 논의하고 관련 발언을 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현대사회에는 다양한 비주류 문화와 하위 문화가 대두하고 있어, 대중 심리에 영합하는 논평이 매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결국 많은 분야에서 역사학자들을 매몰시키고 대중을 오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의심할 여지없이 역사학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에 위협을 가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 역사 연구자들은 그것을 결코 묵과하거나 방관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번 대화를 굳이 역사학의 한 분야로 특정하면, 사학사 혹은 사학 이론과 관련된 영역입니다. 제 인식에 의거하면, 지금까지의 '국사 대화' 참가자 대부분은 주로 특정 시대, 특정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실증 연구를 한 학자들입니다. 물론 모두 역사 전공 출신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학 이론 관련 지식과 소양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저처럼 오랫동안 구체적인 역사 문제

연구에 전념해왔던 분들이라, 사학 이론의 발전 동향, 특히 현재의 사회 문제 및 역사교육 문제, 최신 동향에 대한 이해는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많은 기초 개념에 대한 인식도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회의 키워드 중 하나인 '역사 대중화'를 하나의 현상으로 봐야 할지, 아니면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봐야 할지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대중의 역사', '퍼블릭 히스토리(public history)', 또는 '공공의 역사' 와 같은 다양한 용어가 과연 동등하게 취급 가능할지에 대한 여부도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 또한 부족하기에 토론 과정에서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는 이 기회를 빌어 발표자와 토론자 분들께 발표 시 각자 개념 구사와 용법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의해주시기를 미리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 합의가 부족한 문제이기 때문에, 합의를 도출하고 새로운 지식 공유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더 깊은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오늘 국사 대화의 취지이자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회의 주제와 관련된 오프닝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사들의 대화」 프로젝트의 경위

아쓰미국제교류재단은 2015년 7월, 제49회 SGRA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포럼을 개최해 '동아시아의 공공재' 및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그 과정에서 우선 동아시아에 '지(知)의 공유공간' 혹은 '지(知)의 플랫폼'을 만들고, 이로부터 화해로 이어지는 지혜를 창출해 동아시아에 제공하자는 의의를 확인했다.

이 플랫폼에 '국사들의 대화' 코너를 설치한 것은 2016년 9월의 아시아 미래회의를 기회로 개최된 제1회 '국사들의 대화'였다. 지금까지 3개국 연구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대화가 이루어졌지만, 각국의 역사인식을 좌우하는 '국사 연구자'들이 함께하는 대화는 심도 있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인식 하에, 우선 동아시아의 역사대화를 가능케 할 조건을 모색했다. 구체적으로 미타니 히로시 교수(도쿄대 명예교수), 거자오광 교수(푸단대 교수), 조광 교수(고려대 명예교수)의 강연을 통해, 3국의 다양한 '국사' 연구를 통해 동아시아에서 발생한 일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검토했다.

제2회 대화에서는 자국의 역사와 국제관계를 보다 구조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몽골침략과 13세기 몽골제국의 글로벌화'라는 테마를 설정했다. 2017년 8월, 한국·일본·중국·몽골 등에서 11명의 국사 연구자가 기타큐슈에 모여, 각국 국사의 시점에서 연구를 발표한 후, 동아시아 역사라는 시점에서 조공책봉의 문제, 몽골사와 중국사의 문제, 사료를

다루는 방법 등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의 모든 발표를 통해, 동아시아 전체의 움직임에 주목할 때 국제관계뿐만 아니라 개개의 나라와 사회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분명해졌다.

제3 회 대화는 '17 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전란에서 안정으로' 를 주제로 설정했다. 2018 년 8 월, 9 명의 한중일 국사 연구자가 서울에 모여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만주의 흥타이지의 조선침공 및 그 배경에 있는 은 무역을 주축으로 한 긴밀한 경제관계, 전란 후 안정에 대해 검토했다. 또한 세 차례의 국사 대화를 되돌아보며 다음 단계로 계승하기 위해, 와세다대가 주관하는 '화해를 향한 역사가 공동연구 네트워크의 검증' 이라는 패널 토론을 개최했다.

제4회 대화에서는 "동아시아" 의 탄생: 19 세기 국제질서의 전환' 이라는 테마로 2020년 1월 필리핀 마닐라시 근교에서 한중일 국사 연구자들이 모여 각국의 '서양에 대한 인식', '전통에 대한 도전과 창조', '국경을 넘는 사람들의 이동' 에 대해 발표하고 활발한 논의를 진행했다.

제5회 대화는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을 테마로 하여 코로나 팬데믹 하에서 2021년 1월 온라인 형식으로 개최되었으며, 19세기에 감염병 문제를 각국이 어떻게 인식했고, 또 어떻게 대응책을 준비했는지를 검토하고 각국의 상호협력과 그 한계에 대해서도 고찰했다. 논문 발표와 함께 지난 4회의 회의 참여자가 패널리스트로 다수 참가하여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염병 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온라인으로 개최한 했지만, 결과적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전개로 이어지는 의미 있는 대화가 되었다.

제6회 대화는 아시아 근현대의 '사람의 이동과 경계·권력·민족' 을 주제로 제5회에 이어 온라인(3개국어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다. 시오데 히로유키 교수(교토대)는 문제제기에서 근현대 사람의 이동을 좌우해온 국경에 초점을 맞춰, 사람의 이동이 국가주권체제 및 국제정치구조(제국주의와 냉전)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 후의 세션에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자유토론을 주제로 하여 하루를 소비한 다소 실험적인 구성이었지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본 프로젝트는 포럼, 세션의 대화뿐만 아니라, 3개 국어 레포트 배부와 메일매거진의 릴레이 에세이 등을 통해 원탁회의 참가자의 네트워크화의 도모를 목적으로 시작됐다. 5년에 걸친 경험의 축적으로, 현재 270명 이상의 한중일 국사 연구자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역사 대중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봅시다

한 성민

韓 成敏, 고려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성민입니다. 제가 학술회의에 참여할 때마다 제 직장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소개는 세종대학교로 해 주셨는데, 올해 6월 1일자로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원으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현재 소속은 고려대학교입니다. 이번에 제가 회의 주제로 제안한 것은 ‘역사 대중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봅시다’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발표하는 내용들은 주로 한국의 사례에 대해서 제가 파악한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부분의 내용은 제 동료들과 같이 얘기했던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발표에서의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 주제를 제안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현재의 역사학이나 역사학자들이 어떠한 형태이고,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공식적으로 얘기해보자’라고 하는 취지입니다. 일본이나 중국에 계신 선생님들도, 몇몇 뜻이 통하는 주위 선생님들하고는 한두 번쯤 얘기해 봤던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특히 이런 주제들이 공식적인 논의로 올라오지 않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해도 현재 역사학이 역사를 주제로 한 미디어의 잘못된 내용들에 대해 사적인 자리 말고, 공적인 논의의 장으로 끌어올렸던 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논의에 올리고,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떠한가, 여기 계신 다른 선생님들의 고민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같이 한 번 얘기해보고, 그렇다면 대안은 어떤 것이 있을지 고민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이 제 기본적인 문제의식입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당신이 생각하는 대안은 어떤 것이냐”라는 물음이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예시의 하나이자 대안으로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 저는 ‘퍼블릭 히스토리’에 주목합니다.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번역의 뜻이 통하지는 않습니다만, 보통 ‘공공역사’라 번역합니다. 이 공공역사에 대해 굳이 제가 정확한 내용을 올리진 않은 것은, 논의가 그쪽을 중심으로 흐를 것 같아 일부러 축약해 놓았습니다. 다만 대안의 하나로 이 퍼블릭 히스토리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올려져 있는 토론문들을 받아 보니까, 아무래도 퍼블릭 히스토리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오늘 같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발표는 되도록 간단히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의식

현재의 제 문제의식을 우선 세 가지로 압축해봤습니다(슬라이드 1). 첫 번째는 ‘역사학의 위기’ 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학자로서의 위기’, 세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역사학의 위기는, 내용을 보면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미디어의 지원을 받은 ‘유사역사학’ 이 다른 어느 때보다 왕성해지고 있고, 그와 더불어 정확한 내용 파악을 못한 대중들에게도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중들의 지지와 관련해서는, 대중 영역에서 다양한 역사 소비에 대한 수요가 있는데, 그 수요를 공식적인 역사학이 제대로 공급을 못하면서 유사역사학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그 다음으로 역사학자의 위기는 기본적으로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이기 이전에, 역사학자가 가지고 있던 독점의 종말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은 ‘역사학이 과연 얼마나 변했느냐’, ‘역사학자들은 얼마나 변했느냐’ 입니다. 다양한 미디어가 나오고 시대가 바뀌고 있지만, 역사학과 역사학자들은 그 이전과 비교해서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학과가 존속할 수 있겠는가’, ‘학문후속세대가 이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의식과, 현재 사학과를 졸업한 졸업생들의 취업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일부 대학이나 학과에서는 일시적 대응을 했지만, 역시 이것은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인 대응에 불과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역사학, 역사학자가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에 대한 근본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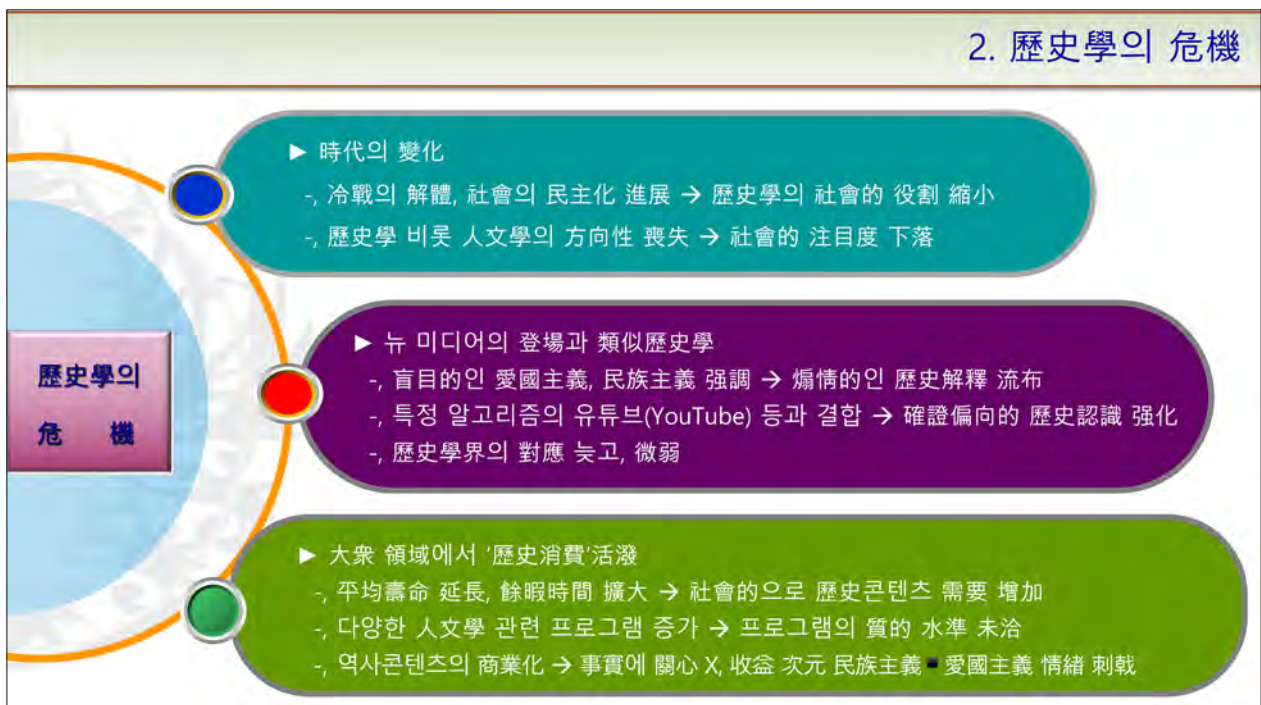
슬라이드 1

2. 역사학의 위기

구체적으로 역사학의 위기는 제가 세 가지로 구분했습니다(슬라이드2). 첫 번째, 시대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냉전 시대가 해체됐고, 한국 사회의 경우, 사회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그 이전에 사회 발전의 지향점을 제시했던 역사학의 사회적 역할이 상당히 축소되어 버렸습니다. 이걸 역사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인문학 전반의 문제입니다. 인문학 전반에서 방향성을 상실하고 사회적 주목도는 하락하면서, 실용적인 학문들, 한 마디로 '돈이 되는 학문들' 에 대해 사회적 주목도가 올라가고, 경제 위기가 여러 번 계속되면서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뉴 미디어의 등장과 유사역사학입니다. 뉴 미디어, 대표적으로는 유튜브(YouTube)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역사 콘텐츠들을 보면 상당 부분 맹목적인 애국주의, 민족주의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선동적인 역사 해석을 유포하는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기존의 공식적인 미디어들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중일 역사의 화해를 목적으로 저희가 학술회의를 매년 하고 있고, 저는 2020년 1월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한·중·일간 역사 해석과는 다르게, 스피커가 큰 미디어, 공식적인 미디어나 뉴 미디어를 통해서 유포되는 내용은 각국의 대립을 오히려 더 선동적으로 부채질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역사학이나 인문학이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유튜브 같은 뉴 미디어는 특정 알고리즘과 결합해서 확증편향적



슬라이드 2

역사 인식을 만듭니다. 대중들의 관심을 확대 재생산하고, 특정 역사 해석에 대한 확증편향적 역사인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학계의 대응은 상당히 늦을 뿐만 아니라, 그 대응 자체도 미약합니다. 대중과 직접 소통에 대해 꺼리는 분위기가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의 연구능력이 연구 업적이라고 하는 논문의 편수와 저서로 평가되고, 대중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평가의 지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유감을 표명하거나, 몇몇이 모여서 “이래서야 되겠는가” 라는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정도로 끝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대중의 영역에선 역사 소비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제력은 향상되었고, 평균 수명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년 이후에도 상당한 삶의 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여가시간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역사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다양한 인문학 관련 프로그램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증가합니다. 그리고 미디어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을 통해서도 다양한 참여 프로그램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증가하는 역사 관련 프로그램들의 질적 수준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대표적으로 단기간에 양성된 박물관 도슨트나 역사 유적의 해설사들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도 뉴 미디어가 주로 그러한 역할들을 담당합니다. 이들은 부족한 역사 콘텐츠의 내용을 맹목적인 애국주의나 민족 감정에 호소하며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기존 미디어나 기업들은 역사 콘텐츠의 상업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을 이익과 연결시키려고 하는 자세를 보입니다. 그것이 실제로 역사적 사실로서 존재했는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대중들이 반응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익 차원에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정서를 더욱 자극하는 것이 현재 기업이나 미디어의 수익 구조라고 생각합니다.

3. 역사학자의 위기

그러면 역사학자들은 어떨까요?(슬라이드3)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역사학자의 독점시대가 종말을 맞이했다고 보는데, 그 동안 역사학자들은 역사에 대해 구체적인, 과거에 대한 지식, 해석, 사료 접근의 기회를 독점했습니다. 주요한 무기는 전문성입니다. 한국의 경우, 과거의 사료는 주로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한문에 접근할 수 있는 일반인들, 일반 대중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한 전문성을 무기로 구체적인 내용과 해석을 대중들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그러한 역할이 상당히 소멸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많은 사료들이 번역되었습니다. 다양한 국가사업, 국가기관, 관련 연구기관, 대학의 프로젝트를 통해, 상당히 많은 사료들이 이미 많이 번역되었고, 번역된 내용들은 디지털화되고 DB화되어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대중들에게 직접 공급됩니다. 일반 대중도 관심 있는 분야의

3. 歷史學者の 危機

■ 歷史에 대한 歷史學者の 獨占 時代 終末

- ◆ 그동안의 歷史學者 - 歷史知識, 解釋, 史料 接近에 대한 機會 獨占
- ◆ 史料의 翻譯, 디지털화, DB화 → 인터넷 이용 大衆의 史料 接近性 增大
→ 歷史學者에 依存 X, 大衆 스스로 史料에 接近, 歷史解釋 可能
- ◆ 역사학자의 학문적 독점 소멸

■ 변하지 않는 歷史學, 歷史學者

- 現在 歷史學者の 모습 100年 전과 별 差異 X
- 史料 分析, 論文 및 著書 執筆, 講義
→ 그 외 大衆 및 社會에 대한 새로운 接近 方法에 대한 苦悶 微弱
- 歷史學의 研究成果와 大衆의 間隙 擴大

슬라이드 3

사료에 대해서는, 즉각적으로 접근과 내용 파악이 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역사학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대중 스스로 역사 해석이 가능해지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학문적인 역사학자의 독점이 소멸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역사학과 역사학자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로 쓰는 표현 중에 “100년 전과 우리가 뭐가 다른가” 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료를 분석하고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고, 강의를 하는 이 형태는 100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논문이나 저서의 집필이 학자들의 주요한 활동이 됐던 것은 이러한 것이 처음 나타났던 시기,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매체가 문자였고 문자의 인쇄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중들에게 전달되는 매체는 다른 것들이 더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과연 얼마나 여기에 대응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이미 직접 손으로 원고를 쓰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대부분 컴퓨터를 이용해 논문을 쓰거나 저서를 집필할 것입니다. 현재 저도 이 발표를 컴퓨터와 인터넷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PPT로 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러한 뉴 미디어에 대해 어느 정도 사용 능력이 있을까요? 과거에 글을 모를 때 ‘문맹’ 이라고 했다면, 지금은 컴퓨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컴맹’ 이라고 봐야 됩니다. 대부분 역사학자들의 사용 형태를 보면, 워드 프로그램 내지는 데이터베이스 이용이나,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엑셀 프로그램,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미디어를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역사학자가 몇이나 될까라고 하면, 제 주변에는 워드 프로그램도 어려운 부분, 복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학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대중과 사회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고민해야 하지만, ‘이러한 고민이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많이 고민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역사학과 역사학의 연구 성과와 대중 사이 간극이 더더욱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적인 기억에 의하면,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일반 대중들도 상당히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제는 역사 전공자들, 역사학자들만이 주로 참여하는 학술대회가 돼 버렸고, 이것은 역사학자들의 고립일 것입니다. 요즘에는 해당 주제에 맞는 학자들만 모이는 역사 학술회의가 대부분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같은 역사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시대가 다르고, 주제가 다르면 관심을 두지 않는, 전문가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좁은 부분만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세분화되고, 한 곳만 집중하는 연구 형태가, 결국 다양한 역사와 관련된 대중들의 반응이나 문제점에 대해 즉각 대응이 힘든 요인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4. 현실적인 문제

현실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인구의 감소, 현재 한국 사회는 평균 합계 출산율이 1명이 되지 않습니다. 0.8명 정도입니다. 인구 감소가 급격히 이뤄질 것입니다(슬라이드4). 제가 대학을 들어갔던 시절 한국 사회는 대입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가 한 해 100만명이 넘었는데, 2022년 한국 사회에서 대학 입학 대상자, 시험을 봐야 하는 학생들은 채 25만이 되지 못합니다. 4분의 1이하로 축소가 됐습니다. 반면 대학의 숫자는 더 늘어났습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역사학의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사학과와 존속, 졸업생들의 취업 등 현실적인 문제가 등장했습니다. 대학에서 역사 과목 자체도 축소되고 있습니다.

4. 現實的인 問題

▶ 全般的인 人口 減少, 歷史學의 社會的 役割 縮小
→ 史學科의 存續, 卒業生의 就業 등 現實的인 問題 登場

□ 史學科의 存續, 卒業生 就業 問題

□ 歷史 關聯 學科의 短期的인 對應

- 大學에서 歷史科目 縮小
- 學科 定員 維持 어려움
- 學科 統廢合의 優先的인 對象化
- 卒業生 就業의 어려움 增大

- ▶ 一部 史學科의 學科名 變更 試圖
- ▶ 根本的인 커리큘럼의 變更 X
- ▶ 危機의 加速化 잠시 遲延에 不過

史學科 및 學問 後續世代 消滅의 憂慮

슬라이드 4

갈수록 과목들이 줄어들고, 학과의 정원유지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얘기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먼 순서, 즉 수도 서울이 북쪽에 있으니, 봄에 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 닫을 수 있다고 하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문 닫을 수 있는 학과는 사학과나 철학과 같은 기초 학문, 인문학 학과들입니다. 학과 통폐합의 우선적인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학과입니다.

그래서 졸업생들의 취업 어려움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졸업생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국 사회에서 요즘 자주 쓰는 말이 '문송합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문과라서 죄송하다' 는 의미입니다. 취업 시장에서 문과 출신들을 환영하지 않고, 사학과는 더더욱 환영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을 책임져야 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대안에 대해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그나마 이런 부분에 대해 반응을 했던 한국의 일부 대학 사학과들이 학과명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사회적인 수요가 있다고 인식한 학과들이 먼저 이름을 전통적인 사학과에서 역사문화학과 내지는 역사콘텐츠학과와 같은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커리큘럼 변경은 없었습니다. 관련된 과목 한두 개를 추가할 뿐이었지, 실제 내용은 기존 사학과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역사와 콘텐츠, 역사와 문화를 같이 할 수 있는 통합적인 학제 구성이 되지 않는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위기의 가속화를 잠시 지연시킨 것에 불과하지,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사학과와 학문 후속 세대 소멸에 대해 우려를 해야 합니다. 물론 한국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5. 그러면 대책은 있을까?

한국사, 한국 사회에서는 사회변혁운동, 민주화운동 내지는 학생운동이 격렬했던 1980년대 '역사 대중화' 라는 용어가 있었습니다. 역사 대중화는 사회 발전에 대한 역사 의식을 대중적으로 보급한다는 의미가 컸습니다. 그런데 당시엔 당연하다는 듯이 사용했던 이 용어가, 1990년대 이래로 상당한 비판을 받았습니다(슬라이드5). 역사 대중화의 의미는 '대중이 읽기 쉽게 쓴 역사' 내지는 '대중에게 흥미 있는 역사로 전환한다', '내용을 쉽게, 흥미있게 풀어낸다' 는 의미인데, 이것은 대중을 무시하는, 대중 계몽에 가까운 개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대중 역사를 쉽고 흥미있게 풀어낸다는 게, 대중의 무지를 전제로 하고, 역사 인식과 역사 서술에 대한 역사학자의 독점적인 권위를 전제로 했다는 점이 비판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는 일정 부분 타당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일정 부분 쉽게 쓰고, 흥미롭게 쓴다는 게 뭐가 문제인가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전문 용어들에 대해 계속 어려운 용어를 사용하는 논문이나 저서가 대중들에게 다가가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역사 대중화라는 것에 또 하나의 다른 대안, 그리고 이러한 역사학의 문제를 풀어낼 하나의 대안으로 '퍼블릭 히스토리' 를 제안합니다.

5. 그렇다면, 對案은...?

◆ '歷史 大衆化' 表現의 問題

- ❖ 韓國的 脈絡에서 使用했던 '歷史 大衆化' 用語 使用 → 批判 多
- ❖ '歷史 大衆化' 意味 → "大衆이 읽기 쉽게 쓴 歷史, 大衆에게 興味있는 歷史로 轉換" 의미
- ❖ 一種의 大衆啓蒙에 가까운 概念
→ '大衆의 無知', '歷史認識과 歷史敘述에 대한 歷史學者的 獨占的 權威 前提'

◆ 하나의 對案으로서 'Public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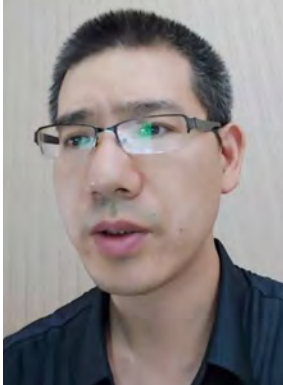
- ❖ 發表者 提起한 '歷史 大衆化'는 實際로는 'Public History'에 가까움
→ 韓國에서 '公共歷史', 日本에서는 'パブリック ヒストリー', 中國에서는 '公衆史學' 翻譯
- ❖ 'Public History'의 概念 및 主要 內容은 國家마다 매우 다름 → 主要 內容 省略
- ❖ 歷史學은 스스로의 存在意義 證明의 時期 → 歷史學은 어떻게 對應해야 할까?

슬라이드 5

그런데 80년대 한국에서 있었던 역사 대중화 문제는 실제로는 퍼블릭 히스토리의 한 부분에 가깝습니다. 퍼블릭 히스토리를 한국에서는 공공역사, 일본에서는 퍼블릭 히스토리, 중국에서는 공중 역사라고 번역합니다만, 퍼블릭 히스토리의 개념과 주요 내용은 국가마다 매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관해서는 생략했습니다. 논의 초점을 현재 역사학의 위기, 역사학자들의 위기에 맞추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역사학은 존재 의의를 스스로가 증명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 반역사주의, 그리고 역사에 있어서의 왜곡 내지는 민족주의적이고 애국주의적인, 즉 선동적인 역사 해석에 대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에 대해 여기에 계신 일본과 중국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하면 어떠한 대안이 있을지, 열어놓고 얘기하고 싶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접한 퍼블릭 히스토리

정 제시

鄭 潔西, 원저우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김단실 (프리랜서)]

아쓰미재단에서 제가 예전에 몸 담았던 직장, 닝보 대학의 공공역사에 관한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길 바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명대(明代) 행정 공문서 독해가 전공이고 주로 문헌자료에 근거하여 역사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공공역사학에 한해서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사실 발언권이 없는 편입니다만, 주최측 요청에 따라 미흡하나마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닝보대학에서 공공역사학 분야를 개척하신 분은 첸마오웨이(錢茂偉) 교수님이십니다. 첸 교수님은 중국사학사(史学史) 출신으로 초창기에는 명대 사학사를 전공하셨고 주로 고서 정리와 과거(科擧)사, 사학 저서 관련 분야 연구에 종사해 오셨습니다. 강의와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역사에 주목하게 되고 관련 이론과 실전적 연구를 전격 추진하면서 커다란 성과를 거두셨습니다. 현재는 국가사회과학기금에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당대 중국 공중역사기록 이론과 실천 연구' 를 총괄담당하고 계십니다. 국내 공중역사학계를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닝보대학 공공역사 연구에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학부생들도 대거 참여했고 특히 '구술사' 는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여한 분야입니다. 모든 이들로 하여금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고 학부생들에게도 '태사공', 즉 역사 기록자의 역할을 맡겼다는 점은 닝보대학교 공공역사학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두 개의 훌륭한 공공역사학 케이스 스터디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의 마지막 황제 푸이의 '나의 전반생' 이고, 다른 하나는 근대 이래 최고의 외교가 두 명(주은래, 리홍장)에 버금가는 인물로 거론되는 구웨이진(顧維鈞)의 '구웨이진 회고록' 입니다.

전자는 푸이가 중국 동북 지방 푸순 전범관리소 재소 중에 직접 구술한 자서전 성격의 반성문을 출판사 편집자가 협업하여 단행본으로 정식 출간한 것입니다. 구웨이진의 회고록은 컬럼비아대학 구술역사 프로젝트로 진행된 수준 높은 작품으로 구웨이진 본인의 구술 외에도 일기, 회담기록, 서한 문서, 전보 파일을 대거 수록하여 편찬하였기에 17년이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이 두 주인공은 역사학자가 아니었습니다. 한 명은 '마지막 황제', 또 한 명은 외교가로서 국내 및 국제 정치외교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산 증인들이었습니다. 구술사 형식으로 본인들이 몸소 경험한 시대의 역사, 인물, 사건들을 소환해 내고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배경과 내막을 적잖이 드러냈다는 점에서 중국 근현대사상 중요 1차 자료로 자리매김 되었고 학계에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케이스는 공공역사학에 속하지만 결코 구술에 머물지 않았고 방대한 양의 여타 문헌자료로 뒷받침하면서 고도의 치밀성을 획득했던 것입니다.

닝보대학의 공공역사학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았습시다만, 저도 독자적으로 일부 공공역사학 관련 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인간은 역사를 만날 때 자신의 가족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생깁니다. 제 경우에 가문의 역사를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에 적잖은 시간을 할애했었습니다. 저희는 농사를 지으면서 학문을 해온 집안으로 문자기록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근대에 접어들면서 전쟁에 이어 1949년 이후 여러 정치운동 탓에 문화는 거의 단절되다시피 했고(수색과 압수를 당하고 교육권도 박탈됨) 기존 문헌의 상실피해도 심각했습니다. 현재 증조부의 조부와 백부의 시집, 문집 각 한 권, 그리고 증조부의 시문집 한 권이 우연이 겹쳐 그나마 남아 있습니다. 이 외에 참고할 수 있는 문헌이라고는 족보에 기재된 계보나 약전뿐입니다.

그럼에도 증조부가 90대까지 장수하셨기에 마을 어르신들 중 많은 분들께서 증조부의 사적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이 분들과의 인터뷰를 통하여 '공중' 을 '사학' 에 끌어들이므로써 증조부의 역사 경험들을 일부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저희 가족은 공공역사학의 수혜자였습니다. 단지 기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공공역사학을 접하면서 발견한 몇 가지 과제입니다만, 첫째로 신빙성 문제가 있겠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역사학적 글쓰기의 중차대한 원칙은 '실사구시' 입니다. 그래서 정통 사학의 경우 연구자에게 상당한 자질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공역사학의 경우 정통 역사학자들도 참여하지만, 아무런 역사학적 소양도 갖추지 못한 문외한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옥석을 구분할 수 없는 이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들이 서술하는 '역사' 의 신빙성은 개개인의 소양에 따라 크게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응답자는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건, 타인과 공유해도 무방한 부분만을 이야기하고 기타 정보는 의도적으로 봉인하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구술자들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학문적 양식이나 도덕적 양심을 갖추지 못하고 자신에 관해 온갖 허풍을 떨거나 하면 구술하는 역사가 정상궤도를 벗어나기 일쑤입니다. 자신과 이해관계가 얽힌 역사 정보에 관해 교묘하게 왜곡과 짜깁기를 시도하고, 심지어 흑백을 전도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문화대혁명시기 '영웅전사' 리우스바오 사건이 그 대표사례였습니다. 현재 공공역사학이 대세로 각광받고 있지만 전통적 역사 연구 수법이 이에 병행되어야 하며 역사학자는 가급적 역사의 객관성 원칙을 견지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윤리적 문제입니다. 저는 근년 들어 저장(浙江)성 한 산촌마을에서 200여명의 노동자들이 20세기인 1920, 30년대 일본으로 건너가 일하고 돌아온 사례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모두 이미 세상을 떴고 현존하는 가장 완전한 자료가 1984년 해당지역 전체 화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인터뷰 기록입니다. 저는 이 기록에 기초해 많은 현지인들을 인터뷰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의 특이한 현상에 주목했습니다.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 노동자들이 1930년대 여러 명의 일본인 여성을 데리고 귀국해 다시 산간지대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현지 사람들은 그녀들이 ‘유괴’ 되어 이곳에 온 것이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최근 쉬저우(徐州)에서 발생한 부녀자 유괴 사건처럼 말입니다.

추적조사를 통해 그 일본인 여성들 중 한 명의 손녀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 손녀분에 의하면, 자신의 할머니는 20대에 중국으로 건너 갔고 저장성 산간지역에서 40년간 살았으며, 전후 두 명의 손민과 결혼했습니다. 1977년 중일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진 후 일본으로 귀국했고, 손자손녀들을 모두 일본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후 일본에서 30년 가까이 사시다가 10여년 전에 100세 가까운 나이로 별세하셨다고 합니다.

손녀분의 회고에 따르면 할머니는 머리가 좋으시고 지적 소양을 지니셨지만 당신의 과거에 관한 언급은 일절 거부했기에 가족들은 그녀의 짧은 시절 경력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1984년 인터뷰 기록에도 그녀에 관한 정보는 없었습니다. 이 케이스에서는 참여 가능한 ‘공중’ 이 적지 않았음에도 얻은 정보가 보잘 것 없었습니다. 근본 원인은 이 일본 여성의 공공 역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지나치게 낮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가 중일 양국의 기록물 검색 조사 및 관련자 추가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일본 여성분의 과거사를 복원해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기의 역사를 파헤쳐 공표하는 것이 본인과 가족들에게 어떤 상처를 안겨줄 수도 있으므로 이 사안에 관해서는 처음부터 윤리적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셋째, 연구 가치를 둘러싼 고민입니다. 저 자신이 인터뷰 과정에서 만나게 된 어떤 집단은 학력이 낮고 언어 논리가 높지 않은 데다가, 생애의 행적이 아무런 대표성도 없기에 하이라이트를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주로 일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컨대 “해가 뜨면 일을 하고 해가 지면 귀가했어요”, “산속에 절이 있고, 절에는 스님이 있네” 와 같이 천편일률로 순환 반복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가령 100퍼센트 사실일지라도 별 의미가 없고, 아무리 많은 취재를 하여 자료 문치를 쌓아올려도 역사적 가치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비록 공공 역사학에 의해 역사연구 대상 집단이 확장되고 ‘태사공’ (역사의 기록자) 집단에 대한 요구가 하향 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역사연구 가치에 대한 기본적인 추구를 공감대로 해 최대한 대표성 있고 독특하면서 질 높은 역사연구의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가급적 중복되는 폐기물과 같은 저질 역사 서술물을 양산하는 일은 삼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실적 문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학과로서의 역사학은 중국에서는 학과 자체가 취소될 확률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학과이기 때문에 현재로는 포화상태이고 취업 전망도 밝은 편이 아닙니다. 박사과정 졸업생조차도 원하는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역사학과의 학생 정원을 축소하거나, 과정 설치시에 역사학 기초 이론 수업 시간을 단축한 결과, 역사학 졸업생들의 역사 지식이 빈약해지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발생 이후 역사학과의 취업률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지도했던 한 대학원생의 경우, 그 학생의 동급생 22명 중 아직 절반이 취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중고교 역사교사, 그 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거나 정부 산하 기관 취직을 지향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빚어진 원인은 위에 언급된 직장들이 체제의 틀 안에서 국가의 재정으로 운영되므로 경제적으로 확실한 보장이 돼 있는 반면, 코로나 상황 하에서 다른 직장들은 이러한 강점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중국 사회 전반에 걸쳐 청년들이 체제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고 있고, 역사학과 학부생이나 석박사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은 목전 중국 내 일종의 사회문제의 투영일 수도 있겠습니다.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전문가의 현위치와 경계

무라 가즈아키

村 和明, 도쿄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릿쿄대)]

도쿄대 무라라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 말씀드릴 게 많아, 사전에 나눠드린 자료에 상당히 많은 내용을 간단히 압축해 넣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나중에 질문해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일본 상황을 아시는 분은 후반 논의에서 보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스스로는 이 문제에 대해 특별히 탐구를 하거나 활동에 참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평소 제 시야에 들어온, 제 눈에 보인 것들입니다.

우선 한성민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상은 일본과 상당히 비슷한, 대부분의 부분에서 동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선생님의 문제의식과 무엇이 과제인지에 대해서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크게 나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본에서 일어나는 일’ 로, 한국과 조금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본과 한국에서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잠시 뒤 논의 시간에 부디 다른 분들의 의견을 청하고 논의하고 싶은 점입니다. 두 번째 점에 대해서는 네 가지 정도로 더 나눠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는 폭넓게 존재하고, 평소 대화에서도 자주 나오는 주제지만, 집단적인 논의나 활동은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제가 아는 주변 활동 사례로서 ‘지역의 사료 조사·연구에서의 협동은 수십년간 시도되고 있다’ 는 것을 거론했지만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관심 있는 연구자가 폭넓게 존재한다고 적었는데, 금일 참가자에 일본 이름이 별로 없어 자신 있게 말하기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역사학’ 과 ‘역사학 전문가집단’ 에 덧붙여, 국가·사회에서 요구되는 ‘역사(서브컬처도 포함)’ 에 대해서도 생각해보면, 일본에서 ‘역사학’ 은 주로 대학의 전문가집단이 담당하고 있고, 여기에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아마추어 향토 역사 연구자도 추가될 것이나, 후자는 크게 줄어들었고, 주로 대학에 있는 전문

연구자가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이 점은 한국과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줄기의 역사를 생각했을 때, 일본에서는 역사학이나 역사가 전문집단의 독점기 거의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사람들이 선호할 것 같은 큰 줄기의 역사에 대한 인플루언서는, 다른 분야 전문 연구자(자칭 전문가도 포함)나 저널리스트가 많습니다. 역사학 전문가인 인플루언서는 거의 없습니다. 숫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다른 연구자들의 시선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대중에 영합하고 있다고 비치기 십상입니다. 반대로 영향력이 큰 쪽은 최근 2세기 동안이라면 작가들이라 하겠습니다. 라이 산요(賴山陽), 요시카와 에이지(吉川英治), 시바 료타로(司馬遼太郎) 등 이야기성이 강한 역사를 쓰는 작가들입니다. 이들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으나, 최근에는 다소 눈에 띄지 않게 된 듯합니다.

콘텐츠에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인기 있는 역사 콘텐츠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만, 분명히 애국주의가 포함될 듯합니다. 애국주의의 내용도 여러 가지였으나 다소 단순하게 말하면, 선과 악을 간단히 나누는 것, 예를 들어 '일본은 선이고 러시아는 악' 이라든가, '이 정당은 선이고 이 정당은 악' 이라든가 하는 상당히 단순한 '정치적 선악이원론' 입니다.

그리고 영웅주의적이고 입지전적인(성공 비결을 얘기하는), 감상적·정서적, 트리비아적·코바나시(小咄, 결말이 있는 짧은 에피소드)적인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것들의 특징은 서민의 오락이라는 점입니다. 서민이라고 하면 다소 거만하게 들릴 듯한데, 일하는 많은 이들의 오락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이는 연극, 소설, 영화, TV 드라마라는 형태로, 수세기의 전통에 맞닿아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한 선생님이 '유사역사' 라 말씀하신 부분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부가 '유사과학' 적인 외형을 띠기 시작하고, 전문가와의 경계가 매우 모호해졌습니다. 성장하고 있는 콘텐츠의 대상과 매체를 보면, 웹상에 올라온 길이가 짧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튜브는 일본에서도 영향력이 상당히 있는데, 유튜브의 매우 짧은 콘텐츠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한국과 유사할 듯한데, 정년 퇴직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점은 한국과는 다를지도 모르겠으나, 일본의 경우 장시간노동, 저임금 등 모두 지친 나머지 불안과 불만이 많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콘텐츠 수요의 배경에 있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역사학은 주로 문학부라 불리는 학부가 중심으로, 이전에는 많은 학부 안에 역사학을 배우는 코스가 나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문학부 이외 학부에서 역사를 공부할 수 없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문학부 자체도 한국과 동일하게 이름이 바뀌거나 인원이 줄어드는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보의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일본은 역사 관계 자료나 연구서의 공개에 대해 솔직히 말씀드려 뒤쳐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현상은 책의 세계에만 해당될지 모르겠으나, 신서(역주: 문고판 책) 등 얇고 읽기 쉬운 간단한 책을 전문가가 쓰고, 몇 만부가 팔리는 것과 같은 활동은

활발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와 같은 책이 조금 늘었기 때문에, 현실적인 희망인 듯도 합니다.

다음 내용은 추후 논의하고 싶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포인트를 네 가지 정도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문제는 아마도 역사학의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조금 더 넓은 틀에서 생각해야 하는 문제로, 그 가운데 역사학이 생각해야 할 문제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하는 것들입니다.

우선 ‘역사학을 넘어서’ 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지식의 체계가 전체적으로 격변하고 있고, 학문과 전문가의 권위가 전세계적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연구 이외의 목적을 가진 ‘유사과학’ 이 대단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국가의 권위를 배경으로 한 대학의 권위, 혹은 대학이나 대형 출판사를 배경으로 한 ‘지식인’ (이 말도 거의 사어가 되었습니다)의 권위, 이것들이 현재 거의 붕괴되고 있거나, 심하게는 적대시되고 있고, 대학의 전문가나 지식인이라고 하면 인터넷에서 적대시되는(반엘리트주의) 경향이 있습니다.

역사학에 한정해 생각하면, ‘역사라는 것’ (커다란 줄기의 역사도 포함)은 감정에 호소하고, 세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누구든지 무언가를 얘기할 수 있으니 학문적이지 않다는 언설이 폭넓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역사의 특징이라 생각하는데, 얘기되는 내용이 학술적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외에 거의 판별할 수 없다는 점이 있겠습니다. 내용보다도 형식, 즉 얘기하고 있는 사람의 직함이나 그 광경으로 판단되고는 합니다. 그리고 정치적, 경제적 이용가치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기 쉽습니다. 소비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주안점을 뒤 활용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러한 문제를 되도록 역사학 방법론으로 생각하고자 하는 점입니다. 오늘은 역사 연구자가 모여 고민을 서로 얘기하는 자리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역사학의 방법론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전문 역사학과 떨어진 대중화가 있다는 것을 고려치 않고 이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역사학 자체가 발전하고 심화하는 것을 하나의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이론과 연구 대상의 예를 간단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역사학’ 은 종이에 인쇄된 논문, 저작물 등의 연구성과, 혹은 소수가 구두로 얘기하는 것과 같은 폐쇄적인 자리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사회를 널리 계몽하거나 보편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은 꺼려져 왔습니다. 일본 역사학은 전통적으로 이런 측면이 있는데, 이를 자각하고 장점과 단점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고, 장점도 생각해야 하고 향후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연구대상을 생각해 보면, ‘개인이 정보를 모아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의 틀’, 혹은 ‘언설이 어떤 권위를 띠고 영향력을 갖는다는 것은 대체 어떤 틀로 이뤄지는지’, ‘전문가 집단, 전문적 지식과 국가나 사회는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사회의 분단과 통합은 어떠한지’ 와 같은 연구를 새롭게 파악할 필요가 있고, 시점도 새롭게 해 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자리에는 전문가 집단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역사학은 변해 가고, 변하지 않으면 안되고, 변해야 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 동시에 바뀌어서는 안되는 방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살아 남는 것과 학문적인 긍지를 어떻게 양립시킬지, 어디에서 균형을

잡을지, 이러한 문제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요하게 볼 문제를 조금 적었는데 ‘열핏 눈에 띄지 않는 사실의 해명, 축적에도 관심을 갖는 것, 사실이나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것, 정보의 신빙성을 신중히 따져보는 것, 결론과 평가를 서두르지 않는 것, 근거가 되는 정보의 보존에 힘쓰는 것’ . 예로써 이러한 것들을 중시하고자 합니다. 지금 사회는 이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사회의 변화에 맞춰가야 한다고 봅니다. 아마도 이러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향후에도 있을 것이고, 이들이 모일 공간으로서의 공동체를 어떻게 존속시켜갈지에 대해 생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화의 방법을 모색할 때, 저희들을 둘러싼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 전망하는 것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은 제 감상에 불과합니다만, 지금 사회는 정보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어떤 것을 신뢰할 수 있는지 알기 어렵게 됐습니다. 정보를 둘러싼 질서나 체제를 이해하기 어렵게 됐고, 질서가 다시 한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질 새 질서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플랫폼 기업이 중요할 것이고, 일본에서도 유튜브나 트위터, 야후의 영향이 대단히 큼니다. 인공지능(AI)도 그러할 것입니다. 국가가 민의를 조달하는 방법이라고 적었는데, 예를 들어 선거제도가 바뀌면 정치와 역사의 관계가 바뀐다고 봅니다. 이러한 의미였습니다. 이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떻게 사회가 바뀌어 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역사학이 어떻게 바뀌어 가야 할지 역시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공공역사학’ 의 현황과 과제

심철기

沈 哲基, 연세대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심철기입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역사 대중화라는 주제, 이를 한성민 선생님에 대한 토론문으로 올리기는 했지만, 우리가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작성된 글을 읽어 나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의 대중화, 이 주제는 한국 역사학계에서 오랜 기간 이야기되어 왔던 주제였습니다. 역사를 몇몇 역사가들의 전유물이 아닌 대중과 함께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역사 소비로 나타났고, 박물관 또는 기념관 등에서 전문가를 초청해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박물관, 기념관들의 행사는 전문가를 초청한 일회성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박물관, 기념관들은 상시 운영을 하고자 다른 방법을 찾게 됐는데, 그 방법이 단기간 속성으로 양성된 도슨트, 해설가들에 의해 진행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은 호응도 있었지만, 부작용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학생,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대부분이었는데, 한성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족한 내용성을 청중에게 선정적이고 과도한 민족 관점, 또는 애국심을 자극하는 것으로 대신했던 것입니다. 전문적인 역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얘기하기보다, 본인들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소 민족 감정을 건드리며 선정적으로 얘기해 부족한 부분들을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받아들인 여러 사람들, 일반 대중들이 오해하는 일도 나타났습니다.

또한 역사 소비 측면에서 주목되는 것은 역사 콘텐츠입니다. 역사를 대중에게 알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한성민 선생님이 지적하셨듯이, 흥미 위주로 진행되면서 잘못된 사실이 전달되거나, 과도한 민족주의, 애국주의로 흐를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런 예능 콘텐츠에서 역사를 주제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몇몇 출연 강사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역사학계에서는 계속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해결을 위한 대안을 크게 제시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공공역사, 퍼블릭 히스토리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성민 선생님이 지적한 역사학의 위기, 사학과의 존속, 졸업생의 취업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위기의 대안으로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역사학을 아카데미 역사와 퍼블릭 히스토리, 공공역사와 구분하여, 각각 학문적 영역과 대중적 영역에서 전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학을 중심으로 아카데미한 역사학을 진행하고, 또한 일반 대중을 상대할 수 있는 공공역사를 구분 아닌 구분으로 해나가자는 것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학계, 한국 사회에서는 아직 공공역사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역사학을 역사학 위기의 대안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공역사학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발표자 제안문에도 그런 점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다. 제안문에서는 생략됐지만 한성민 선생님이 생각하는 한국에서의 공공역사학 개념,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또 중국에서 생각하는 공공역사학 개념이 무엇인지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공역사학에 대한 개념 정리는 기존 역사학계의 인식 전환과 역사학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사학자와 공공역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던 학예사나 작가, 교사 등을 이제 '공공역사가'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현재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카데미한 역사를 하는 학자들과 이것을 바탕으로 강의를 하는 학예사, 글을 쓰는 작가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역사학자가 생각하는 공공역사, 공공역사가가 생각하는 공공역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공통의 인식을 찾는 것은 향후 공공역사를 정착시키는 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한성민 선생님 생각을 듣고 싶고, 여러 다른 선생님들의 생각도 같이 듣고 싶습니다.

또한 공공역사가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성민 선생님도 공공역사가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들에 대한 체계적 재교육을 위해 추진해야 할 핵심 사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예사, 교사, 작가들이 한 번 숙지하고 배웠던 역사학을 재교육시키지 않으면 최신의 역사학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 잘 모를 수 있고, 대중에게 잘못 전달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분들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합니다. 과연 그런 것들이 어떤 체계로서 이루어지면 좋을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공공역사가 유럽이나 미국에선 학문적인 영역에서 이야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역사학이라고 하는 것도 얼핏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공공역사가 학문으로서 공공역사학이 될 수 있을지, 학문 영역이 된다면 역사학, 공공역사학, 공공역사는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의 연장선상일 것 같은데, 이제 역사학으로서의 공공역사학이 가능해진다면 대학에서 공공역사를 학문으로 연구하고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을 듣고

한 성민

韓 成敏, 고려대

세 분 선생님 토론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의 질문은 역시 공공역사 쪽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선 중국 정 선생님께서 본인 사례와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마지막에 “공공역사를 과연 믿을 수 있는가”, “대중에게 역사를 맡겨도 되는가” 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다만 대중을 역사가 자체로 상정한다는 게 공공역사는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무라 선생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역사학에 긍지를 가지고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는 점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역사에서 우리가 다뤄야 될 내용, 사료에 대한 비판, 사료의 보존, 그리고 어떠한 결론을 내야 되는가에 대한 균형 있는 고찰과 고민, 이 부분은 역사학에서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겠습니다. 그런 원칙이 변한다면 그것은 역사학이 아닐 것입니다. 역사학의 원칙을 지키면서 역사학이 현재 시대에 맞게 변화해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게 제 문제의식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공공역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을 심철기 선생님께서 하셨습니다. 대략 다섯 가지 정도의 질문이 될 텐데, 첫 번째 공공역사의 개념입니다. 공공역사의 개념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전문적인 공공역사는 미국에서 시작됐다고 보아 할 텐데, 미국에서는 사학과 졸업생들의 취업 문제를 중심으로 공공역사학이 시작됐습니다. 반면에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 기존 강단 역사에 대한 반발, 즉 제도권 역사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공공역사학이 발달했습니다. 유럽의 주요 국가들, 프랑스의 경우는 국가 프로그램으로 공공역사가 진행됐고, 오스트리아나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대중으로부터의 크라우드 소싱(crowd sourcing) 중심으로 자료를 모으고, 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 같은 것들을 시작하면서 공공역사학이 진행돼 그 의미는 상당히 다릅니다.

다만 저는 공공역사, 퍼블릭 히스토리는 역사의 콘텐츠를 가지고 대중과 함께 소통하면서 진행되는 모든 것이 해당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중에 대한 강연 등을 상당히 낮은 차원의 공공역사학이라고 한다면, 대중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적극적 형태의 공공역사학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학자와 공공역사 분야에서 활동하는 학예사, 작가, 교사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저는 우리 역사학에서 중간층이 매우 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수요가 있고 그 저변이 확대되는 데는 중간매개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사 콘텐츠를 갖고 직접적으로 대중을 대하는 대표적인 경우는 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전문적인 역사학을 학부 과정에서 공부한 사람들이고, 자격을 획득한 사람들입니다.

음악의 예를 들면, 한국 사회에서는 직접적으로 악기를 다루거나 음악을 집중적으로 배우는 어린 시절의 첫 번째 체험은 사설 학원에서 합니다. 사설 학원에서 피아노를 배우거나 바이올린을 배울 때, 선생님 같은 경우 학교 교사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음악가가 아니라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전문적인 음악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전혀 음악이 아닌, 음악을 벗어난 형태의 음악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수 존재하면서 음악의 저변을 확대하고, 교육을 받은 학생들 중에 전문적인 음악가가 되기도 하고, 취미로서 음악을 계속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대중과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 콘텐츠를 공급하고, 전문성을 계속적으로 키워줄 수 있는 건 역사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학자 또한 공공역사가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규정하는 공공역사학은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의 과정입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는 대학 교수지만, 밖에서 대중 강연을 하거나 대중들에게 역사적인 해석을 할 때, 그 역사가는 공공역사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역사학을 역사학과 대치되는 개념이라고 보서는 곤란합니다. 전문적으로 대중들을 대할 수 있는, 대중에 대한 역사가들을 양성하거나, 대중에 대한 역사적 소양을 발전시키는 것을 공공역사학의 개념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공역사, 대중을 직접적으로 만나는 도슨트, 해설사에 대한 재교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때의 단기 속성 과정만으로 10년, 20년 잘못된 내용에 바탕해 자신의 감정으로 대중을 대하는 도슨트, 해설자들은 매우 큰 문제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재교육은 주기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내 공공역사학 과정과 관련해 참고로 미국은 주로 대학원 과정으로 공공역사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정규 과정이 아니더라도 공공역사과정을 만들어서, 도슨트나 해설사를 계속한다면 기간을 2년 단위, 1년 단위, 3년 단위 어떤 형태로든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지속적 교육이 필요한 과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사학과 공공역사학은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구분점은 명확하지 않죠. 역사학으로서의 기본 바탕을 생각하면 공공역사학 과정은 학부보다 대학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역사학과 공공역사학에 공통된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역사학으로서의 공공역사학은 충분히 전문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은 기본적으로 역사가를 지향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구분에 대해 제가 좀 짧지만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대학에서 공공역사를 학문으로 연구, 교육할 수 있는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례 연구가 대부분이 될 수도 있겠고, 대중의 역사적 소양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가 하는 고민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런 부분은 교육과정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의 주요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대답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다른 질문이 있으시다면 다시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2 세션

자유토론

모더레이터 : 남 기정 (南 基正, 서울대)

논점정리 : 류 지에 (劉 傑, 와세다대)

패널리스트 : 문제제기자, 토론자, 국사대화 프로젝트 참가자

[발언은 모국어]



남 기정 (南 基正)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7회 한중일 국사들의 대화가능성 제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2부 사회를 맡은 남기정입니다.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에서 일본의 정치나 외교, 한일관계 등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료를 보는 연구도 하고 있어서, 7회 동안 진행된 한중일 역사가들의 대화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역사의 대중화의 문제와 가능성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한중일 사이에 공공역사라는 것을 만들어 갈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여러 선생님들의 입장 표명, 문제제기, 그리고 그에 대한 답변이 제1세션에서 있었습니다.

논점에 대해서는 바로 류지에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짚어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2부는 한국, 일본시간으로 16시 55분까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유토론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석해주시는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교통 정리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류지에 선생님의 논점 정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자유토론에서 약정토론을 할 세 분이 한중일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류지에 선생님께서

정리해 주시는 논점을 중심으로 가능한 한 토론을 모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분은 류지에 선생님 논점을 잘 정리해서 받아주시고 문제를 새롭게 전개해 나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지에 선생님의 논점 정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논점정리

류지에 (劉傑) 남 선생님 감사합니다. 지금 화면을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이 일곱 번째 국사대화인데, 역대 국사대화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토론에 참여하신 선생님들은 논문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좀 모험적인 시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더 리스크가 클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을 통해 상호교류의 역동성을 증진시키고 여러분의 의견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사대화에서 우리의 관심사는 결국 동아시아 역사문제입니다.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대화 목적 역시 동아시아 역사인식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문제를 사고할 때 기본적으로 역사자료나 역사학적 방법 등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의 대화를 통해 역사학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했음을 느꼈습니다.

아까 한 선생님, 정 선생님, 무라 선생님, 그리고 심 선생님께서 이미 제기하셨던 문제에 대해, 저 나름대로 세 가지 유형으로 요약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역사학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의 능력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역사 문제는 종종 정치 문제로 나타나서 정치적 도구로 변합니다. 정치는 역사학에 제약을 가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손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마다 다른 양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들께서 이미 언급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국가, 지역에서는 역사 해석권이 역사가의 손에 있지 않고, 정치적 구속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역사와 애국입니다. 역사학자들은 종종 자신이 속한 국가를 사랑하는지에 대한 딜레마에 빠집니다. 애국의 정의로운(正義性)과 역사의 과학성이 양립할 수 없는 때가 있다는 것을 자주 느끼게 됩니다.

또한 방금 선생님들께서 역사의 대중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이번 논의의 중요한 과제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정의로운은 결국 대중으로부터 나옵니다. 대중이 정의와 대면할 때 역사학자는 자신의 능력 부족을 실감합니다. 이것이 역사학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두 번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해주신 역사의 대중화에 대한 문제인데, 즉 사료의 디지털화와 인터넷을 통한 공개로 인해, 대중이 역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대중의 역사와 전문가의 역사, 학자의

역사 사이에 큰 격차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차이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또한 어려운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학문으로서의 역사학 또한 현재는 각종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정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오랫동안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학자가 극복하기 어려운 세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역사학자들이 지금껏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입니다. 역사학자로서 우리가 진심을 다해 대응한다면 어쩌면 해답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기에 포함될까요? 가령 여러분들이 말씀해주신 구술사 구축과 활용에 관한 문제는, 신뢰성, 보편성, 그리고 사료가 지닌 역사성에 관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한편으로 감정의 기억에 관한 문제는 역사화가 가능할까요? 약 20년 전 중일 양국간 지식공동체 대화가 있었는데, 감정의 기억을 어떻게 역사화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대중사학이 실증사학이나 학술사학에 제기한 의문에 대해 역사학자들은 사실 정면으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학자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의 문제입니다. 즉 역사학자들의 연구성과는 사회에서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의 문제는 역사학자들이 아직 최선의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를테면 전지구적 역사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관련한, 이른바 ‘글로벌 히스토리(Global History)’의 문제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아까 공공사학, 즉 ‘퍼블릭 히스토리’의 문제와 그 효과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역사학자와 일반 사회와의 접촉도 문제 영역의 하나입니다. 가령 박물관이나 사료관에서 일하는 준역사학자들과 역사가들은 어떤 교류가 가능할까요? 이 또한 아직 답을 찾지 못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요약하면, 첫째는 역사학자들이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둘째는 우리 역사학자들의 노력이 아직 부족해서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던 문제, 그리고 셋째는 공동연구 확대 필요성에 관련한 문제입니다. 이상 세 가지 범주의 분류를 통해 선생님들께서 제기한 문제를 요약하고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에서도 이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토론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토론

남기정(南基正) 류지에 선생님, 감사합니다. 역사가 일반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서 역사와 정치의 문제, 그리고 역사가 일반이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다는 문제, 그 다음으로 아직 역사가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예컨대 글로벌 히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이러한 과제가 있다는 문제제기를 해주셨습니다.

1부에서 나왔던 문제를 포괄, 포함해서 조금 더 큰 문제제기를 해주신 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세 분의 약정 토론자가 계십니다. 세 분의 토론을 더 듣고, 플로어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참여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라야마 선생님, 마오 선생님, 김호 선생님 세 분이 계시는데, 각각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문제제기도 좋고, 지금까지

나왔던 것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설명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따로따로 소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본인이 소개를 해주시면서 발언해 주시고, 언어는 모국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전에 공유된 게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천천히, 그리고 분명하게 발음을 해주셔서 통역하기 쉽게 협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히라야마 선생님부터 모시겠습니다. 7분 정도 전후로 해주시고, 가능한 한 10분을 넘기지 않는 선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 昇) 가나가와대학 히라야마 노보루입니다. 한성민 선생님 문제제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라 선생님은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에 대해 말씀해주셨습니다. 저는 일본 근대사 연구자로서 '일본에서 (과거에) 일어난 일' 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에는 뉴 미디어 보급으로 아카데미 역사학이 대중감정에 패배한 역사가 이미 있었다는 점입니다. 전쟁 전 일본의 학문, 특히 아카데미 역사학은 두 가지에 패배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감동 스토리' 에 대한 패배입니다. 무라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에도시대부터 대중감정을 열광시키는 역사적 영웅 스토리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근대 이후가 되면 애국교육의 보급, 미디어 대중화와 함께, 그 인기는 전례 없는 규모로 커져 갑니다. 역사학자는 일부 영웅의 존재를 의문시(혹은 부정)했지만, 대중은 그에 대해 '말살 박사(抹殺博士)' 라 매도하고 반발했습니다.

상징적인 일이 1911년 일어난 '남북조정윤(南北朝正閏, 정윤은 '정통' 과 같은 의미)' 문제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합니다만, 대중 대상의 한 신문에 게재된 논설을 계기로 여론이 끌어올라 정치문제가 됐고, 교과서를 만든 역사학자가 처분을 당하며 교과서 내용이 다시 쓰이게 된 사태입니다.

두 번째는 '체험' 에 대한 패배입니다. 역사학자가 실재를 의문시하든 하지 않든, 이와 같은 '감동 스토리' 에 관련된 '사적' 이나 '성지' (구체적으로 기념비나 신사 등)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철도 등 근대 교통기관에 의한 투어리즘 확대와 함께, 이 같은 장소를 방문해 분위기를 '체험' 하면서 그럭저럭 역사를 알게 된 느낌을 받는 것과 같은 경향이 확산돼 갑니다. 이는 대중뿐만 아니라, 지식인에게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이상의 두 가지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근대화의 중요한 측면인 '교육·미디어·이동의 대중화(민주화)' 가, 역설적이게도 아카데미 역사학을 압박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 두 가지 모두 미디어와 투어리즘이라는 상업주의와 맞닿아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한성민 선생님이 문제제기에서 지적하신 것처럼, 현대의 역사학과 대중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쟁 전 일본에서 이미 매우 비슷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에는 역사연구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잊어버렸거나, 혹은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현재 저희들 역사학자가 직면한 곤란한 상황을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은 역사학자이니, 현재 상황이 처음

출현한 것이 아니라, 매우 유사한 일이 근대 일본에서 일어났다는 역사적 사실을 우선 공유한 뒤, 논의를 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제 코멘트는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남 기정 (南基正) 네, 감사합니다. 일본의 역사학, 특히 전전(戰前)의 역사학을 소재로 굉장히 중요한 논점을 제기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카데미한 역사가 전전에 한 번 패배한 경험이 있다”, “감동의 스토리 체험이라고하는 것으로 패배한 역사를 지금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는 문제제기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 입장에서 코멘트를 해주실 마오 선생님을 모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오 리쿤 (毛立坤) 참석하신 여러분,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텐진 난카이대학 역사학원에서 근무하는 학자입니다. 마오리쿤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말하긴 텐데, 일본어와 한국어로 동시통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회의에 처음 참가하게 되면서 역사학의 대중화라는 주제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서 중국 근현대사 과정을 강의하고 있고 저 또한 근현대 도시사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 자신이 느낀 점에 입각하여 역사학 대중화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근현대사의 중대한 사건들과 중요한 역사적 인물, 그리고 역사적 법칙에 대해 대중들이 매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에게 차를 마시거나 식사 후 한담하기에 딱 좋은 주제들입니다. 근현대사 여러 전쟁이나 운동, 가령 일본과 관련된 중일전쟁이나 한국과 관련된 항미원조전쟁(역주: 한국전쟁), 그리고 신중국 건국 후 발생한 역사적 운동들, 이를테면 토지개혁, 농업집단화, 지식청년하향, 문화대혁명과 같은 주제는 대중들의 이야기거리로 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민감한 문제를 다루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전문적인 문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종종 주류 관점과는 다른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즉, 자신의 실제 경험과 결부시키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허난성 농촌 여성의 자살 문제를 알게 된 한 학생이 있는데, 이러한 문제는 권위 있는 기관이나 언론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는 주변의 노인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깊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학생은 해당 주제로 박사 논문을 써냈는데 상당히 훌륭했습니다. 매우 은밀했고 가슴 아픈 역사를 폭로한 것입니다. 농촌 여성들은 이혼 등의 방법으로 탈출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궁지에서 벗어나지 못해 자살에 이르게 됩니다. 그 학생이 1950년대부터 60년대까지 허난성 농촌 여성의 자살 문제를 박사 논문 주제로 선정한 것은 대중사학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에 대해 언질을 줬고, 그 학생도 깊이 있는 연구를 거쳐 박사논문으로 완성해간 것입니다.

역사의 대중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또 다른 현상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체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오락성을 띤 역사 콘텐츠로, 특히 중국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많은 젊은 사무직 근로자들이

퇴근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식사가 아니라 드라마 시청입니다. 낮에는 볼 시간이 없기 때문에 퇴근 후 인터넷을 통해 밀린 것을 몰아봅니다.

이 현상은 몇 년 전부터 시작됐고 청궁이 타임슬립을 타고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드라마가 인기몰이를 했습니다. 이러한 장르의 드라마는 역사적 진실과는 분명히 동떨어져 있지만, 현실 생활 속의 경험을 사극에 이식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고, 퇴근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가 됐다는 것은, 중국 젊은 세대가 역사적 소재와 현실을 결부한 드라마를 선호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이런 방식을 통해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합니다. 젊은이들은 이러한 접촉을 통해 역사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오락성을 띤 역사입니다.

그들보다 나이가 많은 중장년층, 특히 여러 세대가 한 지역에 거주하는 대가족 구성원들은 그들이 함께 살아온 기억을 담은 지역 사회 변천사나 가족사, 그리고 지역 유지의 활동에 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합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한 과거를 연결시켜 가족, 친구 및 이웃과의 집단 기억을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이는 노인들의 일상 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그래도 점점 많은 젊은 역사학도들이 방학 때가 되면 가족 방문 기회를 활용하여 가족과 어른들의 기억을 담은 구술사를 정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사라져 갈지도 모르는 많은 역사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개혁개방의 역사에 대한 연구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날 중국의 50세에서 60세 사이 사람들은 어린 시절 힘든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경험했던 좋은 시절,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세월을 회상하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학생은 '춘절 귀성 40년'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이 논문은 매년 구정 때 어떻게 외지에서 고향으로 돌아갔는지, 서로 다른 세대의 경험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즉 젊은 시절 어떻게 고생하고 귀성길에 올랐는지와 최근 고속철도 발달로 얼마나 편리하게 이동하게 됐는지에 대해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제 선정은 대중 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회의의 주제이기도 합니다만, 역사의 대중화는 제가 접했던 학생들 가운데서도 잘 반영되고 있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또 다른 부류의 젊은 학생들은 좀 독특하지만, 매년 조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공은 역사학이 아닌 다른 전공, 심지어 이공계인데 대학원 진학에서는 역사학을 선택합니다. 몇 번 실패하더라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역사학을 선택하는 이런 현상을 저는 매년 경험해 왔습니다. 과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원래 전공을 접고 역사학을 선택하게 했을까요? 몇몇 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역사현상이나 역사인물, 혹은 일부 역사문제에 대해 심취해 있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에서 역사학을 전공함으로써 자신이 심취해 있는 분야의 의문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원래의 전공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 또한 역사학의 특정 문제들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하나의 방증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남 기정(南基正) 감사합니다. 중국의 근현대사, 특히 전쟁과 대중 운동이라고 하는 한 세대가 공유하는 체험들이 일반적이고 대중적으로 역사의 생산, 유통, 소비에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까 히라야마 선생님에 제기하신 문제와 비슷한 맥락을 여기서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마틱한 스토리나 세대가 공유하는 체험과 같은 것들이 역사의 대중화라는 것과 밀접히 관계를 갖는다는 방향에서의 코멘트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약정 토론자 모시겠습니다. 김호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오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혹시 가능하시다면 키워드 같은 것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그것을 번역해주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들은 채팅창에서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김 호(金濤) 남 선생님, 고맙습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의 김호입니다. 저는 한국근세사를 공부하고 있고, 시기적으로는 18세기를 중심으로 위아래 시기의 역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중일 공히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 공공역사 혹은 대중화와 같은 문제에 대한 토론을 맡게 돼 많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통역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급하게 몇 가지 제 말을 적어 보았습니다. 저는 역사의 대중화는 거스를 수 없는 추세이고, 필연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전공하고 있는 조선 후기, 18세기 학자 정약용은 자신의 책 '상서고훈(尙書古訓)'이라는 중국 고전에 대한 주석에서 공자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부(富)와 가르침[教]의 주도권이 왕에게 있지 않고, 아래로 내려가면 정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왕, 최고 지도자는 삶의 기초가 되는 부를 장악하고, 이것을 통해 토지와 같은 것을 인민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있고, 경제적 토대를 제공해야만 정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른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가르침을 통제해야 하고, 가치 판단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왕의 권력은 물질적인 토대뿐 아니라, 정신적 가치의 최종판단자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역사학은 항상 동아시아에서 이전 정부나 과거에 대한 최종 판단의 결과물이었고, 지도자가 이러한 것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역사가와 정치의 문제에 대해 논의하셨는데, 역시 동아시아에서 이것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전부터 '춘추'가 강조된 이유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국가의 관점으로 역사가 한 번 정리되면, 사실상 개인들의 새로운 도전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춘추의 시시비비를 국가가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 조선의 역사에만 국한해 보더라도, 많은 지식인들이 국가의 정사에 도전해왔습니다. 춘추의 시시비비를 국가가 온전히 독점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그것에 참여하려는 많은 지식인들의 욕망이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근대사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대중의 역사 참여 욕망은, 이미 수 천년전부터 존재했고, 이것과 함께 역사가 발전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보통 대중사회라는 말을 합니다. 대중사회라는 것은 대중들의 욕망이 일반화되고, 이들의 정치 주체로서의 자각 같은 것들이 과거에 비춰 봐서,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진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 해소되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정보에 손쉽게 접근 가능한 상황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생각하기에 1931년도 미국 역사학자 칼 베커(Carl Lotus Becker)가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사를 쓸 수 있다” 는 상황이, 20세기 말, 21세기에 들어와서 이제 현실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역사를 자기 스스로 작성하고자 한다” 는 이 욕망이야말로 공공역사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정리한 지식과 누군가에 의해서 정리된 내용을 전달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역사 서술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 이야말로 공공역사학의 핵심이고, 대중 사회의 핵심적 테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100인 100색의 내러티브, 100인 100색의 역사, 하나의 대문자 역사(History)가 아니라, 소문자 히스토리즈(histories)라고 하는 역사들이 가능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너무 걱정해서 ‘유사역사학’ 이나 ‘사이비역사학’ 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중 사회의 적나라한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까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중들을 대상으로 대학이 적당한 교육과 수업 방법, 역사학자의 윤리,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이 위기라고 말씀하는 것보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대중들의 역사적 욕망, 즉 역사적 주체로서의 욕망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오히려 역사학은 그것을 위기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미 수십 년 전 미국이나 독일의 대학들은 공공역사 커리큘럼을 개발하고 대학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80년대 이후 공중역사학이 상당 정도 대학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일본과 한국이 최근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면서 상대적으로 늦게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공역사학의 개념에 대해서도 아직 혼란스럽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공공역사학으로, 일본에서는 차라리 퍼블릭 히스토리라고 하자고 하는 것도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독일의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마르틴 뤼케(Martin Lucke)의 ‘퍼블릭 히스토리’ 라는 책을 보면, 공공역사학에서 중요한 가치는 결국 내러티브 중심의 역사적 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다원적 관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식 중심보다는 대중들이 역사 서술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의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또 역사적 상상력을 펼치고, 그러면서도 하나의 관점이 아닌, 다원적 관점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공공역사학의 핵심적 가르침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종과 계급, 젠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런 것들의 갈등만 조장하기 보다는 포용하는 태도가 공공역사학에서 가장 지향해야 하는, 추구해야 하는 가치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이 역시 깊이

있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용의 태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조선의 18세기로 조금 거슬러올라가면, 정약용의 후배 학자였던 홍길주라는 사람이 18세기 조선의 유학자들이 유학을 너무 좁게 규정하고, 유학이 아닌 나머지를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역사란 모름지기 이래야 한다”고 정해 놓고 그렇지 않은 것을 배척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포용의 태도를 강조한 이야기를 제가 여기에서 인용했습니다. 홍길주의 주장은 정통 유학이라는 것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것들을 모두 이단으로 만들어 버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나치다 싶어도 포용하는 태도를 유학자들이 길러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입니다.

저는 유사역사학이나 사이비역사학이라는 단어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말 자체가 정통과 이단을 가르려는 종교적 심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참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바입니다. 지나친 상업화를 추구한다든가, 정치적 개입이 지나쳐 문제가 된다는든가, 또 극단적인 역사수정주의 같은 것들이 나타나 역사 해석에 문제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선생님들이 앞에서 우려한 내용들입니다. 저 역시 걱정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사이비역사학이나 유사역사학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그것을 배척하는 태도를 가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의 왕이었던 정조는 학문을 사랑했던 지도자였던 만큼, 자신의 관료들과 상당히 오랫동안 경전에 대해서 토론한 적이 있는데, 제가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한 구절이 생각나서 인용해서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조가 한 번은 ‘맹자’를 읽으면서 한 대목을 토론합니다. 인과 의에 대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정조는 관료들인 지식인 사대부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말할 만하지 않은 일을 말하는 것은 그 죄가 작지만,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들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죄가 매우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죄가 큰 사람들을 뭐라고 하나면 ‘비부(鄙夫)’, 즉 비루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당신들은 비부가 될 것인가”라고 하면서 관료들에게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을 말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의 임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공공역사학을 포함해, 모든 역사학자들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아야 할 것들, 굳이 연구하지 않아도 될 것을 연구하지 말고,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은 목숨을 걸고라도 말할 수 있는 식견과 용기를 가지는 태도를 고취시키면, 유사역사학이나 사이비역사학과 같은 것들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의 임무는, 반드시 말해야 할 것들을 반드시 말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은 매우 큰 용기와 식견이 필요하다는 태도를 길러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역사학의 위기를 기회로 생각하면서, 이러한 태도들을 역사학자들과 함께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제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기정(南基正) 감사합니다. 역사의 대중화는 필연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역사의 대중화라는 것은 역사학의 위기라고 하기 보다 역사학에 있어서 하나의 기회를

열어주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공역사 또는 역사의 대중적인 방법을 포함해 역사가가 꼭 염두에 뒤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태도도 짚어주셨습니다.

무라 선생님께서 트리비아 또는 고바나시(小話)에 집착하는 문제를 제기해주셨는데, 그것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분 각각 한국, 일본, 중국의 입장에서 조금씩 다른 각도에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예컨대, 마지막에 김호 선생님께서 제기해주셨던 얘기 중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한국과 일본이 역사의 대중화 또는 공공역사라는 부분에서 늦은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공공역사 부분에서 현상적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왜 그럴까 하는 점도 궁금합니다. 또 역사의 대중화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선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김호 선생님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인 것 같은데, 과연 그 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 선을 넘는 것은 왜 안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고민하는 지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과 관련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참가자들에게 발언의 기회를 드리고 싶지만,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가능하면 5분 내외로, 핵심만 짚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실 때는 모국어로, 본인의 소속과 이름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수한 용어일 경우에는 설명을 길게 해주셔도 좋으니,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 모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먼저 시작해주실까요? 화면상으로 손을 들어주셔도 좋고, 제가 모든 분들을 다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드는 버튼을 눌러주시거나, 채팅창에 이름을 올려주시면 제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손을 드시는 분이 안 계신데, 그러면 시오데 선생님께서 아까 시간이 허락될 때 코멘트해도 된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시오데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시오데 히로유키 (塩出 浩之) 교토대 시오데입니다. 한성민 선생님, 프레젠테이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 선생님의 위기감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애초 역사라는 것은 과거를 얘기하는 행위·실천 그 자체, 혹은 그러한 행위 모두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역사의 스토리화나 소비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합니다. 이 점은 한 선생님과 생각이 다르지만, 역사학자가 역사를 독점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고, 무라 선생님도 말씀하셨듯 과거에도 없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만 오히려 오늘날처럼 대중(혹은 엘리트가 아닌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시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아까 김호 선생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점에서 이는 역사학자에게 기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문제는 오히려 일반인에게 소비되는 역사가 기본적으로 국가의 역사라는 것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만이 소비의 대상이 되는 점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과거라는 것은 여러 형태로 이야기할 수 있음에도, 학교에서 배우는 국가의 역사만이 역사로서 소비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문제이지 않을까요? 이 점에서 정제시 선생님이나 마오리쿤 선생님이 소개하신 것과 같이, 일반 사람들, 즉 대중이 자신들의 역사를 이야기하거나 해주는 것은 상당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역사와 역사학 사이에 있는 간극을 메워줄 하나의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과거에 대해 생각할 때, 현재의 기억과 과거의 일기 중 어느 쪽을 신용할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자료’의 의미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학이 과거에 어떻게 다가설지에 대해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형태로 자신들의 역사를 생각하는 데도 하나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정 선생님께 질문하고자 합니다만, 전문이신 명나라 시기 역사에 대해, 중국 사회에서의 대중적 역사 소비에 대해 뭔가 생각나는 지점이나 문제를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남 기정 (南 基正) 감사합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질문이 나오기는 했는데, 그 전에 먼저 사토 선생님께서도 코멘트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토 선생님 지금 계시면 코멘트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토 유키 (佐藤 雄基) 릿쿄대학 사토입니다. 오늘 선생님들의 중요한 논의를 들을 수 있어서, 대단히 자극을 받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할 부분이 많았습니다. 저는 두 가지 느낀 점, 궁금한 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무라 선생님의 코멘트에 대해서입니다. ‘전문가 불신, 전문지식 권위의 붕괴’는 역사가뿐만 아니라, 학문 전체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관해, 전문적 ‘의학’을 예로 생각해 봤습니다. 의학에서는 민간요법이나 가짜 치료법이 돈 문제와 얽혀 대단히 성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건강, 금전적 피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한편, 그러한 민간 요법의 경우, 불치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되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학’을 둘러싼 이러한 문제를 염두에 둘 때, 유사과학적 ‘역사’가 확산됨으로써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지가 논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즉, 대중적인 역사, 유사과학적인 역사, 그 모든 것이 문제일 수는 없고, 지금까지 논의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이러한 역사의 대중화는 피해갈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민간요법이 그러하듯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원’이 되는 일도 없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사학이 노력해야 할 문제는 상당히 한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이건 안돼, 그것도 안돼”라 치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사과학적 역사가 믿는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 ‘피해’ 상황이 분명해지면 전문적 역사학이 노력해야 할 사회적 역할도 잘 보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역사’의 문제입니다. 역사교육이나 박물관 학예사 활동, 혹은

역사소설을 써온 사람들의 창작 활동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계속돼 왔습니다. 이를 새로이 '공공역사' 라 개념화 및 가시화해 나가는 것은 아마도 역사학 연구자에게 이점이 있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역사가로부터 '공공역사' 로 재정의되는 측, 즉 역사교육이나 창작활동, 크리에이티브한 활동을 해온 사람들에게는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역사학과 관계를 맺는 한편, 동시에 교육자로서 교육학 전문가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상황은 모르겠으나, 일본에서는 역사학과 출신 이외에, 교육학이나 다른 분야 교육을 받은 사람이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 되는 게 보통이고, 이런 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역사 교육 현장에서도 역사학보다 교육학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있는 게 일본의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역사 소설가 역시, 역사를 담당함과 동시에 무엇보다 소설가로서 문학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역사학과 공공역사라고 할 때, 역사가의 시선으로 역사학이 지도자고, 공공역사가 수동적인 쪽이라고 하는, 역사가 중심의 도식을 거론하기 쉽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실제로는 역사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 즉 역사나 교육, 소설, 복수의 전문 분야가 교차하는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역사학만으로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교육학이나 문학(소설가) 쪽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복수 분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과 같은 자리에 오히려 그러한 분들을 초청해 논의해 봤으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이에 관해, 조금 역사학적인 경위를 설명이라고 할까요, 조금 생각해봤으면 합니다. 일본의 경우, 원래부터 역사학이 역사 교사나 학예사에게 강한 영향력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역사학과 졸업생들이 그러한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다만 최근 일본의 경우, 학예사에 관해서는 '문화재학' 등의 전공이 새롭게 탄생해 학문 분야로 독립하고 있고, 20세기 후반에는 교육학이 독자 학문 분야로 발전해 와서, 오히려 사학과 이외 학부 학과 출신 역사교사가 늘어나, 영향력을 강화해 온 경위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지금 새로이 '공공역사' 라는 문제가, 역사학에 있어서 과제가 돼 온 것은 새로운 현상이기보다, 다른 여러 학문 분야(예를 들어 '문화재학' 이나 '교육학' 등)와의 관계 변화에 의해, 학예사, 교사 등의 '공공역사' 를 역사학이 독점할 수 없게 된 것, 그 때문에 역사학이 새로운 관계의 '재구축' 을 요구받게 된 결과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의 역사적 경위를 어떻게 생각할지는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으리라 봅니다. 제 코멘트는 이상입니다.

남 기정(南基正) 감사합니다. 사토 선생님께서는 “민간 용법이나 사이비 용법 같은 것들이 건강이나 금전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나름대로 효용 가치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역사에서 고민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제기해주셨습니다. 또 역사를 담당하는 역사 전공자 이외의 사람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학을 전공해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 또는 문학이나 문예 관련 종사자들이 역사를 다루는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의 현상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고, 이렇게 이뤄지는 역사를 어떻게 재구축해나갈 것인가가 과제라고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정리한 것은 제 나름대로 정리가기 때문에 다른 부분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느끼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각자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있습니다. 무라 선생님께서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 한중일 모든 언어로 채팅창에 질문이 올라왔으니 여러 선생님들 한 번 확인해주시고, 무라 선생님께서는 지금까지 나온 것들을 포함해 발언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 선생님께서 지금 손을 들고 계십니다.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화면에서 사라지셨는데, 그럼 무라 선생님께서 먼저 코멘트 해주시겠습니까?

무라 가즈아키(村和明)

많은 코멘트와 질문을 해 주셔서 매우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한 분씩 답변 드리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정리해서 말할지 조금 주저되는 점도 있지만, 되도록 짧게 정리해 다시금 코멘트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중 한 가지는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신 일본 근대의 경험에 대해서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1부에서 코멘트한 가운데, 짧기는 했습니다만, ‘역사학의 방법으로 생각해야 한다’, ‘전문가 집단과 국가 사회와의 관계를 역사로서 생각해야 한다’ 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다’ 고 생각한 아주 훌륭한 사례를 거론해 주셨습니다.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들어주신 사례에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일본에서 광의의 퍼블릭 히스토리에 대한 관심이, 전문가 사이에 그다지 크지 않은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일본 역사학자 사이 그 개념에 관해 ‘어떤 말을 쓸까’ 를 두고 합의도 없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아까 제 코멘트에서도 짧은 단어, 짧은 개념은 거의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신 질문 중에서도 “일본에서 최초의 퍼블릭 히스토리라는 것도 역사학자가 아니라 민속학에서 나오지 않았는가” 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소개해주신 말씀처럼, 근대 일본의 역사학자가 아카데미한 역사학 연구를 진행했을 때, 특히 천황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사회와 국가의 엄청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압박을 받은 결과, 일본의 전문가 집단은 어떤 대응을 취했을까요?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대로 숨어버렸습니다. 구체적인 연구사(研究史)는 생략하지만, ‘대학의 전문가가 말하는 것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형태로 벽을 만들고, 세간의 역사관에 그다지 적극적으로 관여하려 하지 않는 전략을 취해 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특히 1950년대는 예외가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는 시오데 선생님이 말씀해주신 내용과도 맞닿아 있는데, 민중의 역사, 지역의 역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특정 촌락이나 영역에서, 그곳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지역의 자료를 연구해, 그들이 말하는 역사에 귀를 기울이고, 지역의 역사를 연구자와 연구자 이외 사람이 서술하는 시도를 꽤 긴 기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어 왔는가 생각해보면, 현대에는 상당히 애매한 상황이 됐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고 평가해서는 안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현재의 상황은 위기가 아니고 기회다’ 라는 지적인데, 이는 김

선생님, 시오데 선생님의 의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류 선생님이 과제를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주시고, '역사학자로서 길이 보이기는 하지만 충분히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 는 것과, '어떠한 길로 나아가갈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는 것으로 문제를 나눠주셨습니다.

이 정리를 참고로 하면, 위기와 기회는 대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역사학의 위기라 생각하지만, 이 위기를 동시에 기회로 보고 '역사학자는 무엇을 회피해온 것인가', '역사학자는 무엇을 선택해온 것인가' 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내고, '우리들의 가치관은 무엇인가', '우리들이 인정할 수 없는 가치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반성하거나 바꿔 가는 것은 양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를 전제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처럼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역사 전문가가 전문가 이외 모든 사람들과 어디까지 함께 역사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 저는 다소 비관적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하는 부분이라면 공유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해 봐야 하는 점은 '사실로서는 거짓이 하나도 없고 모두 올바른 진실' 임에도 '나열과 조합의 방법과 선택에서 커다란 거짓을 범하는 일' 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말하는 것인지', '어떤 결론을 위해 말하는 것인지' 라는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논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김 선생님이 독일의 예를 소개해주셨는데, 가치관의 다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 역시 그 말씀대로라고 봅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최고의 나라다', '한국인은 뒤떨어져 있다' 는 내용이 머릿속에 이미 굳어져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인용하는 자료가 모두 사실이라 해도, 우리가 함께 생각할 수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점으로 되돌아갑시다만, 어떠한 가치관을 갖고, 어떠한 윤리성을 갖고 있는가를 우리들은 확인해야 하고, 그에 따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토 유키 선생님이 의학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잘못된 의학 지식은 인간을 다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대로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유사과학의 위험성을 설명할 수 있는 훌륭한 사례입니다. 틀린 역사가 인간에게 어떤 해를 끼치는가에 대한 문제인데, 이는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 마디로 얘기하면, '사회의 분단' 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대화의 기획과는 완전히 반대로, 결론이 정해져 있고, 감동을 요구하고, 그 가운데서도 특히 적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프라이드를 만족시키는 대상을 찾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유사역사학적인 내용은 매우 매력이 있는 대상입니다.

역사라는 것은 세계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자신과 타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인가, 저들은 무엇인가, 우리들과 저들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를 역사는 얘기하기에, 그 지점에서 정치적인 결론으로 유도되거나 단기간의 쾌감이나 기분 좋음을 가치로, 그것을 목적으로 이야기하는 일이 횡행하게 되면 대화는 어려워집니다. 적이 자신의 내부에서 빠르게 고정화되고 악한 존재가 되어 갑니다. 이것이 향후 사회, 세상이 어떻게 질서를 유지해 갈지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대통령선거 뒤 폭동이나, 코로나를 둘러싼 일종의 음모론이

있습니다. 백신의 배경에 거대한 악의 조직이 있어서 인간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음모론 같은 것과 유사역사학은 상당히 친화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제가 생각하는, 함께 생각할 수 없는, 싸워야 하는 대상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들 전문가의 역사는 정말로 유사과학과 다른 것인지, 우리들이 이야기하는 역사는 권위적이고, 무의식 중에 국가나 일종의 권력을 위해 일하고 있는 면은 없는가 하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면, 저는 계속 분단을 강조하는 얘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무엇을 용납해서는 안 될지에 대해 다시 확인해야 하고, 이를 위해 우리들이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주신 질문 중에 답변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시간 관계상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 기정 (南基正)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역사의 대중화라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선이 그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발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송 선생님께서 돌아오셨는데, 발언 가능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송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송 쓰용 (宋志勇)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저희 세션에 참석하신 인원수가 70여 명이나 되어 너무 기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다른 선생님과 동료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직접 경험한 역사 대중화의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허리가 아파서 정형외과 의사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이 정형외과 의사는 제가 중일관계사를 연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단숨에 10여 분 동안 그의 중일 관계사에 대한 관점과 견해를 들려줬습니다. 저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하면, 그가 말한 내용 중 많은 부분은 정확하지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은 여전히 사회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역사학을 전공하는 연구자로서 무력하고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난 후 저는 허리 통증에 대해 물었습니다. 딱히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냥 파스를 붙이면 된다면 2분도 안 돼 진료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역사학 연구자와 사회의 대중 역사애호가들이 어떻게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사학자, 전문 역사학 연구자가 역사 대중화에 대해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선 저는 전문 역사학 연구자로서, 기본적인 역사학 연구의 규범과 역사학자로서의 프라이드에 충실하고, 또 연구 윤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문 역사학자로서 지켜야 할 필수 사항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대중사학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어울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사학에 전문적이고 정확한 역사 지식을 전달하고, 역사학에 대한 사회의 요구와 수요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대중사학에서 좋은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대중사학이 지닌 힘은 여전히 매우 큼니다. 또한 규모도 매우 크기 때문에 전문 역사학자가 다 커버하기엔 벅잡니다. 실제로 우리 전문 역사학자들이 그들에게 배울 점이 많습니다. 방금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역사학은 역사학자들이 독점하는 산업이 아닙니다. 미래의 역사 서술과 역사 기술에서는 반드시 전문적인 역사학자와 비전문적인 대중사학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 기정 (南基正) 감사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다 각각 나름대로 지금 생각이 있으실 텐데, 여기서 다 해결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를 정리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한중일 국사들의 대화라는 것, 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개별적으로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대중화의 현실과 경위, 특징 같은 것들을 각각 한국, 중국, 일본의 현실에서 확인해 봤고, 거기에서 일정한 차이점도 보이고, 공통으로 보이는 문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차이점이나 공통의 현상들이 한중일의 근현대사에서 각각 조금 다른 경위, 경로들이 있었을 텐데, 그러한 역사의 경로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좀 확인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일 한중일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공역사를 주제로 한다면, 한중일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큰 의미에서의 공공역사라는 것이 정말로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가능한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얘기들을 앞으로 해야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얘기들을 오늘 패널리스트들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리하자면, 일본은 과거, 전전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역사의 대중화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중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와 반대되는 입장의 패널리스트도 있었습니다만. 그에 비해 중국에서는 대중들의 역사가 매우 활발하고 중국 사회가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주신 한성민 선생님이 굉장히 우려하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마지막으로 토론해주신 김호 선생님은 오히려 그것은 필연적인 과정이고, 기회로 볼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각각 개별적인 차원에서라도 입장이 조금씩 다르고 세 나라에서도 조금씩 입장이 다른데, 이야기를 모아가기 어렵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3부에서 이어서 얘기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곱 번 대화를 해보니 한중일 국사들의 대화가 앞으로 지향해야 할 대화의 방향에 대해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주셨다고 생각하며 2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만, 시간의 제약으로 여기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양해해주시시오. 여러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제3세션

총괄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도쿄대 명예교수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릿쿄대)]

오늘은 ‘역사 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이라는 주제로 대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역사의 프로로서 일상적으로 느끼고 있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를 한성민 선생님께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서 제기해주시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시금 감사 말씀드립니다. 한성민 선생님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중한 삼국 멤버가 대중소비를 위한 역사가 사회 전체에 대해, 특히 직업적인 역사가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고, 민감한 반응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다만 제2세션 논점 정리에서 류지에 선생님이 지적하셨듯, 역사 대중화를 생각할 경우, 단순히 대중과 직업적 역사가만 생각해서는 안되고, 국가나 정부라는 다른 하나의 거대한 권력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오늘 논의는 그다지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전쟁 전 일본에 대해 히라야마 선생님이 두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 뒤 무라 선생님이 보충 발언을 하셨는데,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이야기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역시 유의해야 할 문제라 생각합니다. 실제 논의하는 것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만.

그러면 이를 전제로 원래의 주제로 돌아가, 한성민 선생님이나 무라 선생님은 대중소비를 위한 역사, 그것이 어떠한 폐해를 일으키고 있는가에 대해 상당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성민 선생님이 하신 말을 인용하면, 애국주의라는 정해진 이야기의 패턴이 있고, 이것이 사람들을 그 안에 가둬 놓는 강한 힘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힘일까’라는 것이 저에게는 큰 의문으로 남았습니다. 대중소비를 위해 이야기되는 역사를, 한성민 선생님은 굳이 ‘유사역사’, 진짜와 닮은 것 같지만 실은 틀린 역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여러 수단이 있다고 하면서 퍼블릭 히스토리를 유력 후보로 제시하고, 그 뒤는 다른 선생님들의 토론에 맡겼습니다.

그러나 오늘 매우 인상적이었던 점은 “아니, 그렇지 않다. 대중의 역사도 좋은 점이 있다”라는 논의가 나온 점입니다. 저에게는 약간 놀라웠지만, 그것 그대로 배울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호 선생님이 퍼블릭 히스토리라는 것은 대중이 역사 속에서 주체가 되는 귀중한 기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정한 역사 해석이라거나, 학교의 교사가 가르치는 역사 해석을 그대로 받아들이라고 강제되어 온, 수동적인 대중이 스스로 역사를 만드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분명히 이는 퍼블릭 히스토리의 이점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김 선생님은 독일 학자의 설을 거론하며 에스니시티(ethnicity)나 젠더, 계급을 넘어선 다양한 역사해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가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쉽게도 저는 그다지 낙관할 수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 대중이 스스로 만드는 역사 대부분 애국주의에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이것이 우리 역사학자 공통 과제가 되리라 봅니다.

그리고 중국의 정제시 선생님과 마오리쿤 선생님 두 분도 학생들이 대중에 대한 면접 조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거기에서 대중의 역사를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고, 이것이 지금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구술사라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는 작업이고, 예전 역사학은 '엘리트가 엘리트를 위해 쓰는 역사' 이자, 대중은 거기에 끌려들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데올로기로서 기능했던 것으로, 저도 그에 비하면 큰 진전이 있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역시 범위가 좁지 않은가 합니다.

저처럼 일본의 역사가로서, 중국, 한국과 역사 대화를 시도해본 적이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국가가 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일본인 개개인의 대중 역사를 이야기해도 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역시 국가 차원의 역사를 어떻게 해석할지라는 문제는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 위에서 대중 속에 뛰어들어 쓰는 역사는 분명히 의미가 있다고 실감했습니다.

그리고 일한 양국으로 돌아가, 아카데미즘 사학이라는, 지금 이 자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한 관점에서 보면, 유튜브에서 이야기되는 역사라는 것은 대단히 난감한 존재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아카데미즘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무엇인가 하면, '사료의 비판적 해독' 을 철저히 훈련받은 점입니다. 일본의 역사학은 전쟁 전부터 독일 역사학의 영향을 받아 사료 비판을 절대적 가치로 상정해왔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손에 쥔 사료를 보고 "이건 어디까지 신용할 수 있을까" 라 의심하는 것이 첫걸음이었고, 어떻게 하면 가늠할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하는 게 두 번째 걸음이었습니다. 이를 무의식 속에서 자동적으로 행하는 것이 프로 역사가라는 것이, 일본사학에서 체현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이 생각한 방향과 맞지 않는 사료가 다수 나왔을 때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실로 손해 보는 장사라 생각합니다. 유튜브에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들을 전부 무시해버리면 되니 '참 편하겠구나' 라는 질투조차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생각해달라" 고 말하며 "당신들의 생각에 어긋나는 사료가 여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아카데미즘 사학의 입장에서 대중을 위한 역사학은 난감한 존재이나, 그렇다고 해서 비난으로 끝날 문제도 아닙니다. 지금 시대는 여러 번 지적이 있었듯, 우리들이 열세이고, 비난만으로 효과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수단은 무엇일까요? 역시

대화 외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에게는 뉴 미디어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할 방도가 거의, 아니 전혀 없는 듯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어떤 나라의 역사학, 아카데미즘 사학에 속한 사람들도 중고등학교 선생님이나, 혹은 박물관 학예사들과 상시 접점이 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일본의 역사학자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이 중고교 교사나 학예사가 되는 일이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접촉은 체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 점에 대해 우리 일본의 역사학자들이 게을리해왔다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는 ‘고등학교·대학 연계 역사교육연구회(高大連携歴史教育研究会)’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고교와 대학 교원들이 연계해 고교의 역사교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하는 조직으로, 오사카대 벤토나사가 모모키 시로(桃木至朗) 선생님이나 영국사 아키타 시게루(秋田茂) 선생님이 중심이 돼, 상당히 오랜 기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올(역주: 2022년) 봄부터 시작된 ‘역사종합이라는 고교 과목에서는 교과서를 만들거나 실제 교실에서의 교안, 교수방법계획을 만들기 위해, 대학 교수도 고교 선생님들과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한 아이디어를 동료들에게 공급하고, 서로 배우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협력하고, 선생님들의 얘기를 들으며 “여기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비록 은퇴하더라도 조직은 완성돼 있고, 앞으로도 꽤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일본의 역사에 관한 고교와 대학 연계는 이러한 형태로 시작됐고, 가능하면 오늘 참가한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이 모임에 들어와주셨으면 합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문부과학성이 예산을 써 정기적으로 중고교 선생님들을 재교육하는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일본학술회의에서 ‘역사종합’ 과목의 기초가 된 안을 동료들과 만들고 제안했는데, 그 때 우리들은 재교육 필요성도 논의했고, 일본 정부에 대한 제언에도 적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일지 모르겠으나 이래서는 곤란합니다. 중고교 선생님들은 평소 학생 지도가 너무 바빠, 역사학의 새로운 학설을 배울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정말 훌륭하다고 하겠으나, 보통 선생님들에게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45년에 한 번, 예를 들어 여름 방학에 1주일 정도 철저하게 배울 기회를 준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 역시 일본의 아카데미즘 역사가들이 문부과학성에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성민 선생님이 제안하시고, 무라 선생님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에 보통의 역사학 코스와 별도로, 퍼블릭 히스토리 코스를 두면 어떨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새로운 코스를 만드는 것만으로는 안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퍼블릭 히스토리 코스와 보통의 역사학 코스가 나뉘진 채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경우, 중고교 선생님들 다수가 교육학부 출신입니다. 문학부나 법학부, 경제학부에도 역사학이 있지만 이곳 출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학부 역사학 코스는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칠까, 즉 노하우는 가르치지만, 학생들이 스스로

날것의 사료를 읽고 그 해독을 시도하는 경험을 선사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가르쳐야 하는 내용, 역사의 해석은 배울 수 있으나, 역사학의 가장 핵심부분인 '사료의 비판적 검토' 라는 경험을 하지 않은 채 졸업하고, 학교 선생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퍼블릭 히스토리 코스가 이와 같은 것을 담당하게 된다면, 새로운 분단이 재생산될 뿐이고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일본에도 퍼블릭 히스토리 코스를 만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역시나 이러한 배려, 특히 통상적인 역사학을 하는 전문가들이 퍼블릭 히스토리를 가르치고, 거기에 중고교 선생님들, 학예사들, 자원봉사로 박물관에서 설명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스스로 접근해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 아카데미즘 역사가들이 지금까지는 따로따로 일을 했지만, 횡적으로 연계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카데미즘에서 여기서 주도권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소 얘기가 길어졌지만, 오늘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해 굳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귀중한 말씀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께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통역을 담당한 선생님들께 너무 큰 부담을 드렸습니다. 다른 여러분과 함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쓰미재단의 늘 변함없는 지원에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제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폐회사

조 광

趙 珖, 고려대 명예교수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개최된 제7회 ‘국사들의 대화’의 주제는 ‘역사 대중화’였습니다. ‘역사 대중화’에 대한 문제는 일찍이 ‘공공역사(public history)’에서 주목했던 과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퍼블릭 히스토리의 전부는 아니고 그 일부라는 말입니다.

‘역사 대중화’가 이번 주제로 선정된 데는 ‘퍼블릭 히스토리’라는 역사학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전통 역사, 아카데미 역사학에서도 더 이상 도외시하기 어렵다는 한중일 역사학계의 판단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역사 대중화에 대한 한성민 선생의 문제제기에 이어, 오늘 활발한 회의가 전개되었습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역사학계 일반에서 제시되고 있는 공공역사의 개념과 전망, 그리고 한국의 공공역사학의 현황 문제가 어떤지를 다시 한 번 요약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공역사, 즉 퍼블릭 히스토리란 말을 처음으로 사용한 로버트 켈리(Robert Kelly)는 “공공역사는 교실 밖에서 실천되는 역사이다”라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이 정의에서 감지되는 것처럼, 미국적 전통에 따른 퍼블릭 히스토리 개념은 전통적 ‘아카데미 역사학’의 독주에 대한 저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퍼블릭 히스토리라는 개념이 미국에서 사용되기 이전인 1920년대부터 유럽의 역사학계와 철학계에서는 공공 내지 공공성, 그리고 공중, 대중 등의 개념이 주목을 받아왔음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이후 여기에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의 공론장, 퍼블릭 스피어 이론으로부터 공공역사학은 더욱 풍부한 영감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히라야마 선생님이 토론 과정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 사건이나 현상의 이해를 위해서는 사학자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역사를 사학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미국, 유럽 여러 나라에서 등장 과정은 각각 다양한 계기와 역사적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구미의 역사학자들도 ‘공공역사’란 개념에 있어서도 연구자에 따라 개념 차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 토론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아시아 여러 나라에서의 공공역사가 각자 고유한 배경과 맥락을 각각 다른 입장에서 토론하고 제시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도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각국에서 드러나고 있는 공공사학의 특성을 반영해서 자신의 연구를 진전시켜 나간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공사학은 역사 생산자로서 대중을 주목해야 한다는 인식이나, 뉴

미디어 발달과 관련해 역사의 소통과 보급에 관련된 현상을 보통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김호 선생님은 역사 생산자로서 개인의 내러티브를 중요시하는 현상에 대해, 개인의 존재에 대한 주목 현상을 공공역사가 드러낸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파악하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죠. 오늘 웨비나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점은 '역사의 서술과 재현을 통한 소통' 이 공공역사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관심사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역사를 서술하고 재현한다, 재현해서 일반 대중과 소통을 한다는 점을 모두 지적해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공공역사는 집단적 역사 의식의 형성을 주된 목표로 삼고 있는 학교 교육과는 달리, 이를 뚜렷한 목표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공공역사의 개념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입니다. 그리고 사회 속에서 역사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실천하는 형식을, 아주 다양하게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공공역사의 특성이 되겠습니다.

이 점이 한국의 경우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한국에서 역사 대중화 문제가, 공공역사 논의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국사 교과서 국정화 문제, 이는 참 비극적인 일이었습니다. 또한 레거시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끈 비전문적 역사연구자들의 등장한 현상, 이른바 '인플루언서' 라고 하는 사람들의 등장이 역사를 보급시킴과 동시에 왜곡시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또 주변국과의 역사 분쟁에 편승한 국수적 역사학의 흥행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학계에서도 이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학계에서는 대표적 역사학 관계 단체들이 매해 열리는 역사학 대회가 있습니다. 이 그 중 2017년도 주제가 '역사 소비 시대, 대중과 역사학' 이었다는 사실은, 지금 한국 역사학계에서 드러내고 있는 공공역사 내지는 역사와 대중의 관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 역사학계에서 간행하는 주요한, 그리고 인기 있는 학술지 가운데 하나인 '역사비평' 에서도 특집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역사비평』 "한국 공공역사의 현장과 실천의 문제들").

이러한 공공역사의 전개가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역사학이 권위를 잃어가는 양상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대학의 역사 관련 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난은 아마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듯합니다. '공공역사' 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고, 반면에 역사학자들의 위기를 가속화할 수도 있는 양날의 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역사연구자들은 '근대 역사학(modern history)' 이, 지금 포스트모던 히스토리의 하나의 대항으로서의 모던 히스토리가 될 텐데, 여기서 강조해 왔던 바와 같이 역사연구자들만이 할 수 있는 역할과 해야만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역사학자도 바로 근대 역사학자들처럼 증거를 찾아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아시아에서 공공사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좀더 고민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진지한 회의를 통해서도 한 번에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공공사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는 류지에 선생님도 문제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공공역사에서 공공에

대한 연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공공에 대한 연구는 대개 두 가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대중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가운데 대중이 역사를 소비하고 참여해서 생산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흐름이라고 판단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공공 영역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 역사의 대중적 형태, 과거와의 참여가 어떻게 역사적 지식을 생산하는지를 연구하는 흐름입니다.

최근의 국제적인 연구 동향은, 전자가 월등히 약화되고 후자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역사가는 대중의 역사적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고 대중이 역사적 지식을 생산, 소비, 그리고 협상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결코 간과하거나 관심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일부 공공역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포스터모던적 관심 이외에도 모던 히스토리, 즉 근대 역사학이 지니고 있던 강점과 역사적 기능을 함께 살릴 수 있는 방안도 계속 모색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국사들의 대화에 저는 1회부터 참여했습니다. 1회부터 참여하면서 젊은 연구자 분들 중 적지 않은 분들이 어느새 학계의 주요한 연구자로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4회 필리핀에서의 대화 이래, 온라인에 연속적으로 참여한 연구자들의 소통은 이제 끈끈한 우정의 형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국사들의 대화에서부터 쌓아온 대화의 경험이 이제 결실을 점차 맺어가고, 세 나라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 나라의 연구자들을 기계적으로 모아두어서는 도달할 수 없는 지점을 일곱 번의 모임으로 도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연구자들이 지닌 의무를 다시 일깨워주었습니다. 힘든 여정이겠지만 더욱 힘을 내어 좋은 영향력을 세 나라에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발표를 통해 공공사학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그 나아갈 방향을 함께 생각해 주신 참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 아시아에 있어서의 공공사학에 대한 개념이 좀 더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었고, 공공사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새로운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참여자들에게 더욱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연자 약력

■ 한 성민 (韓成敏) / HAN Sungmin

1991년 東國大學校 史學科 입학. 1998년 東國大學校大學院 史學科 입학. 2016년 東國大學校大學院 史學科 博士課程 졸업, 文學博士 학위 취득. 現在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院 研究教授. 專門分野는 韓國近代史. 近代韓日關係史. 韓國近代外交史. 근대 이후 극명하게 다른 길을 간 한국과 일본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한일 간 역사문제의 기원으로서 근대 한일관계사에 천착하여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작 : 『日本の '韓國併合' 過程 研究』(京仁文化社, 2021), 「제2회 헤이그 萬國平和會議 特使에 대한 日本의 對應」(『韓日關係史研究』 51, 2015), 「亡命者 金玉均에 대한 日本政府의 處遇와 朝鮮政策(1884-1890)」(『歷史와現實』 109, 2018), 「1907년 體制 成立過程에서 日本의 韓國政策과 韓國社會의 對應」(『日本歷史研究』 49, 2019) 등

김 경태

전남대

2022년 8월 6일 개최된 제7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의 주제는 「‘역사 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이었다. 역사대중화와 공공역사는 국적과 전공 분야를 뛰어넘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주제였고, 실제로 시간이 많이 부족할 정도로 열띤 대화가 오갔다.

첫 번째 세션은 리언민 선생님 사회로 진행된 문제제기와 지정토론이었다. 평하오 선생님의 개회 취지에 이어, 한성민 선생님의 문제제기가 있었다. 필리핀에서 열렸던 제4회 국사들이 대화 이래 열성적으로 참여하여 항상 날카로운 의견을 들려주었던 한성민 선생님의 문제제기는 시의적절했다. 한 선생님은 “‘역사 대중화’에 대해 함께 생각해봅시다”라는 제목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한 선생님은 평소 동료 학자들과 함께 이 주제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였고, 이번 문제제기는 그러한 논의를 정리한 것이기도 했다. 한국의 사례를 역사학의 위기와 역사학자의 위기, 그리고 현실적 문제(역사학과의 존속과 졸업자의 취업)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요컨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사학도 변해야 하고, 또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역사학자의 역사 독점시대가 끝났음을 인정하고,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선생님은 그 대응 방안 중 하나로 퍼블릭 히스토리(공공역사)를 소개했다. 이 개념, 혹은 방식이 아직 한중일 삼국에 이론으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한 고민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것이었다. 역사학이 스스로의 존재의의를 증명해야 할 시기라는 제안도 함께 해주었다.

이에 대해 지정토론을 맡은 세 나라의 연구자(중국의 정제시, 일본의 무라 가즈아키, 한국의 심철기)들은 조심스럽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 각 나라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고민들을 보여주어 흥미로웠다. 나라별로 역사학계의 권위(예를 들면 역사가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것), 앞으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대중의 역사 참여가 활발하며 이를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뉴미디어와 함께 비전문적 역사가들이 대중들이 원하는 틈을 찾아 들어오는 장면과 역사학이 직업으로서 안정성을 잃는 모습(취업 전선의 어려움)은 공통되는 듯했다. 이것은 세계적인 문제일까. 공공역사학이라는 대안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공통적으로 세 나라에서도 공공역사의 개념에 대해 정의할 필요성(범위 마련)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세션은 남기정 선생님의 사회로 진행된 자유토론이었다. 먼저 류지에

선생님의 논점정리가 있었다. 역사가 정치와 관계될 때(도구가 될 때)를 주의해야 한다는 점, 역사가 일반이 극복해야 할 문제, 역사가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 등을 짚어주었다.

자유토론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다.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활발한 대중 역사의 모습, 그리고 미디어와 급변하는 세상이라는 현실을 지적(마오리쿤), 역사의 대중화는 필연적인 것 -역사적으로 국가에서 정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음에도 이에 대한 도전은 언제나 있었다- 모두 자신이 역사가 되고 싶다는 것이 공공역사학의 핵심. 오히려 기회이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태도가 중요. 물론 참을 수 없는 것(지나친 상업화, 정치적 개입, 역사수정주의)은 거부해야 한다는 의견(김호), 전향적으로 대중의 역사를 받아들여야 하며, 기회로 보아야 한다는 것, 대중역사의 효용성도 있다는 것(시오데 히로유키, 사토 유키). 이와 같이 비교적 낙관적인, 혹은 역사학자의 적극적 변화를 촉구하는 견해 외에도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히라야마 노보루(平山昇) 선생님은 근대 일본에서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일이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무라 가즈아키 선생님은 위기와 기회의 양립에는 동의하면서도, 역사전문가가 전문가 이외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이른바 유사역사학의 가장 큰 위험성은 사회를 분열시킨다는 것, 예를 들면 적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은 중요했다. 두 가지 상반된 논의가 아니라 실제로는 역사학자로서 비슷한 고민을 하면서,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역사 대중화는 역사학자들이 모두 함께 고민하여 넘어가야 할 문제인 것이지, 물리치고 이겨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세 번째 세션은 리언민 선생님의 사회로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의 총괄과 조광 선생님의 폐회 인사로 마무리 되었다. 두 선생님 모두 “짧은” 연구자들의 고민을공유해주면서 격려의 말씀도 해주었다.

이번 ‘대화’ 는 모두 어깨의 짐을 조금 내려놓고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자는 것이 목표 중 하나였을 것이다. 그러나 대화를 하다 보니 같은 고민을 하는 연구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쁜 마음이 들면서도, 한편으로 무거운 짐이 다시 주어진 듯한 느낌이었다.

앞으로 역사학자의 역할은 무엇이 될까. 이번 대화에서 우리는 ‘대중’ 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으나, 대중도 하나로 바라봐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 중에서는 선과 악이 분명히 구분된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 특정 분야에 대해 전문 연구자보다 더 매니아틱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암기위주의 역사교육으로 인해 흥미를 잃은 이도 있을 것이다. 혹은 내가 알고 있던 역사는 가짜였다라면서 이른바 역사수정주의로 돌아서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한 사람의 역사연구자가 모든 대중을 만족시킬 방법은 없을 것이나, 이러한 다양한 모습의 대중들 앞에서 역사 전문가로서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다. 필자는 대중강연과 학술회의의 중간 정도 성격의 행사에 가끔 가게 된다. 때때로 “재미가 없다”, “감동적이지 않다” 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다. 역사 드라마와 같은 감동적인 강연을 원한 분들이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때로 그분들의 흥미에 맞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두 가지 정도 준비하기도 한다. 요즈음은 하나의 직업에도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는 것 같다.

앞으로 역사연구자도 좋은 학술 논문을 쓰는 순수한 임무 외에, 대중들이 적어도 잘못된 역사에 빠져들지 않도록 방향을 안내해주는(물론 대중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역할을 감당해야만 한다고 생각한다. 재미있지만 잘못된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할 것이고, 역사 매니아들이 놓칠 수 있는 역사적인 통찰력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대중서 쓰기, 외국의 좋은 서적을 번역하는 작업, 다양한 미디어를 사용해서 정확한 역사를 알려주는 일 등이 구체적인 방법일 것이다.

이런 일들을 학자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여 무시해서는 안 되고 겁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서 대중과 연결은 역사연구자의 의무이다. 할 수 있는 일. 해야만 하는 일을 해야만 한다. 화석과 같은 학문에 만족한다면, 그러한 역할만을 맡게 될 것이다.

(김경태 「제 7 회 국사들의 대화 보고서」 를 전재함)



■ 김경태 KIM Kyongtae

대한민국 포항시 출신. 한국어 전공.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중인 2010 년~2011 년 도쿄 대학 대학원 일본문화연구전공(일본사학) 외국인 연구생 자격으로 유학. 2014 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로 재직 중. 전쟁의 파괴적인 본성과, 전쟁이 초래한 황무지에서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평화 사이에 존재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작 : 허세와 타협 -임진왜란을 둘러싼 삼국의 협상- (동북아역사재단, 2019).

제 7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역사 대중화' 와 동아시아의 역사학 '참가자 목록

	성명 (알파벳)	성명 (일본어)	성명 (한국어)	성명 (중국어)	소속 (한국어)
발표자					
1	Han Sungmin	韓成敏	한 성민	韩成敏	고려대
지정토론자					
2	Zheng Jiexi	鄭潔西	정 제시	郑洁西	원저우대
3	Sim Chulki	沈哲基	심 철기	沈哲基	연세대
지정토론자 / 실행위원					
4	Mura Kazuaki	村和明	무라 가즈아키	村和明	도쿄대
패널리스트					
5	Hirayama Noboru	平山昇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升	가나가와대
6	Kim Ho	金滸	김 호	金滸	서울대
7	Mao Likun	毛立坤	마오 리쿤	毛立坤	난카이대
8	Sato Yuki	佐藤雄基	사토 유키	佐藤雄基	릿쿄대
패널리스트 / 실행위원					
9	Shiode Hiroyuki	塩出浩之	시오테 히로유키	盐出浩之	교토대
10	Song Zhiyong	宋志勇	송 즈용	宋志勇	난카이대
실행위원					
11	Chen Lu	陳璐	첸 루	陈璐	와세다대
12	Cho Kwang	趙琬	조 광	赵琬	고려대 명예교수
13	Chong Soonil	鄭淳一	정 순일	郑淳一	고려대
14	Kim Kyongtae	金キョンテ	김 경태	金囧泰	전남대
15	Li Enmin	李恩民	리 언민	李恩民	오비린대
16	Liu Jie	劉傑	류 지에	刘杰	와세다대
17	Mitani Hiroshi	三谷博	미타니 히로시	三谷博	도쿄대 명예교수
18	Nam Kijeong	南基正	남 기정	南基正	서울대
19	Peng Hao	彭浩	펑 하오	彭浩	오사카공립대
동시통역					
20	Ding Li	丁莉	정 리	丁莉	베이징대
21	Song Gang	宋剛	송 강	宋剛	베이징외대
22	Lee Hyeri	李ヘリ	이 헤리	李惠利	한국외대
23	Ahn Younghee	安ヨンヒ	안 영희	安暎姫	한국외대
24	Jin Danshi	金丹実	김 단실	金丹实	프리랜서 통번역가
25	Piao Xian	朴賢	박 현	朴贤	교토대
번역					
26	Hong Yongil	洪龍日	홍 용일	洪龙日	도쿄대
27	Yu Ning	于寧	유 닝	于宁	도쿄대
28	Yun Jae-un	尹在彦	윤 재언	尹在彦	릿쿄대
사무국					
29	Imanishi Junko	今西淳子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아쓰미재단
30	Tsunoda Eiichi	角田英一	쓰노다 에이이치	角田英一	아쓰미재단
31	Nagai Ayumi	長井亜弓	나가이 아유미	长井亚弓	아쓰미재단
32	Miyake Aya	三宅綾	미야케 아야	三宅綾	아쓰미재단

SGRA 보고서 지난호 안내

- SGRA レポート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2 CISV 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 マキト、金 雄熙、李 來賛 2001. 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 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5 第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 マキト、李 鋼哲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步」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7 第3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 パート、高 偉俊 2001. 10.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8 第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 教育革命：IT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白井建彦、西野篤夫、V. コストブ、F. マキト、J. スリスマンティオ、蔣 恵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 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09 第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 2. 28 発行
- SGRA レポート10 第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 ギュレチ、板垣雄三 200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 7. 8 発行
- SGRA レポート12 第7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 プレンサイン 2002.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 マキト 2002. 12. 12 発行
- SGRA レポート14 第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 + 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プートゥラ、孟 健軍、B. 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2003. 1. 31 発行、
韓国語版2003. 3. 31 発行、中国語版2003. 5. 30 発行、英語版2003. 3. 6 発行
- SGRA レポート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 1. 31 発行
- SGRA レポート16 第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17 第10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 3. 30 発行、英語版2003. 6. 6 発行
- SGRA レポート18 第1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榮濬
2003. 12. 4 発行
- SGRA レポート20 第12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COP3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 3. 10 発行
- SGRA レポート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2004.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23 第1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プラムティオノ 200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25 第14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裕、F. マキト、金 雄熙 2005. 3. 31 発行

- SGRA レ포트 26 第15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 1. 24 発行
- SGRA レ포트 27 第16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 エルドリッチ、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8 第17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ダチ・アナ・エリーザ、朴 校熙、小林宏美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9 第18 회 フォーラム ・ 第4 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
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 5.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0 第19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 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宮崎法子、東島 誠 2005. 1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1 第20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 マキト
2006. 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2 第21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留学生-」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パーブ・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3 第22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4 第23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蘭 進、ノルマン・ヘイヴンズ、ランジャンナ・ムコパディヤヤー、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5 第24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6 第25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IT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富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7 第1 回 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8 第6 回 日韓フォーラム in 葉山講演録 「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 SGRA レポート 39 第26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0 第27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プラチャー・ムシカシント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1 第28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蘭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ンナ・ムコパディヤヤー 2008.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2 第2 回 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 新疆講演録 「黄土高原緑化協力の15 年—無理解と失敗から
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 1 発行
- SGRA レポート 44 第29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45 第30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
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 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46 第31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
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47 第32 회 フォーラム 講演録 「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
清水 諭、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 8 発行

- SGRA レポート 48 第3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延辺&北京講演録 「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年」 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9 第33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 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0 第8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日韓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 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 Web 版 2009.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1 第3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 大多和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2 第3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世紀の課題」 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ブ・ティ・ミン・チイ、劉 傑、孫 軍悦 2010. 3.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3 第4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上海講演録 「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TABLE FOR TWO〜」 近藤正晃 ジェームス 2010. 4.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4 第37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 玄田有史 シム・チュン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5 第38回フォーラム講演録 「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 木村建一、高 偉俊、Mochamad Donny Koerniawan、Max Maquito、Pham Van Quan、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榮珠、王 劍宏、福田展淳 2010. 1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6 第5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民間協力」 第一部（北京）：「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 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第二部（フフホト）：「地下資源開発を中心に」 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7 第39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 井上まどか、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タ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蘭 進、陳 継東 2011. 12.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8 投稿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 平川 均 2011. 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9 第1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1300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 朴 亨國、金 尚泰、胡 潔、李 成制、陸 載和、清水重敦、林 慶澤 2012.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60 第40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 田多英範、李 蓮花、羅 仁淑、平川 均、シム・チュンキャット、F・マキト 2011.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61 第4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 恒川恵市、黒柳米司、朴 榮濬、劉 傑、林 泉忠、ブレンサイン、李 成日、南 基正、平川 均 2012.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62 第6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 柳田耕一 「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 郭 偉 201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4 第43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 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南 基正、林 泉忠、竹田いさみ 2012.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5 第44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 「21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 赤堀侃司、影戸誠、曹圭福、シム・チュンキャット、石澤紀雄 2013. 2. 1 発行
- SGRA レポート 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日英戦後和解（1994-1998年）」（日本語・英語・中国語） 沼田貞昭 2013.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7 第1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 平川 均、加茂具樹、金 雄熙、木宮正史、李 元徳、金 敬黙 201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68 第7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
(日本語・中国語・英語) 宮崎幸雄 2014. 5.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9 第45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ー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ー」
村瀬信也、南基正、李成日、林泉忠、福原裕二、朴榮濬 2014.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0 第4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
荒川智、上原芳枝、ヴィラーク 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佳英 2015.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1 第4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ー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
と倫理ー」崔勝媛、島蘭進、平川秀幸 2015. 5.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72 第8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
佐藤道信、木田拓也 2015.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3 第14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ー
物流を中心に」李鎮奎、金雄熙、榊原英資、安秉民、ドマンホーン、李鋼哲 2015.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74 第4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
劉傑、平野健一郎、南基正 他15名 2016. 6.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5 第50回SGRA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ー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
神崎智子、斉藤淳子、李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 6. 27 発行
- SGRA レポート 76 第9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200年ー文化史からの再検討」
劉建輝 2020.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77 第15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ー共進化アーキテクチャ
の模索」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78 第5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今、再び平和についてー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
えるー」南基正、木宮正史、朴榮濬、宋均宮、林泉忠、都築勉 2017. 3. 27 発行
- SGRA レポート 79 第52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
劉傑、趙珖、葛兆光、三谷博、八百啓介、橋本雄、松田麻美子、徐静波、鄭淳一、金キョンテ
2017.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80 第16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韓の国際開発協力ー新たなアジア型モデルの模索ー」
金雄熙、李恩民、孫赫相、李鋼哲 2017. 5. 16 発行
- SGRA レポート 81 第5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人を幸せにするロボットー人とロボットの共生社会をめざして第
2回ー」稲葉雅幸、李周浩、文景楠、瀬戸文美 2017.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82 第5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2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ー蒙
古襲来と13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葛兆光、四日市康博、チョグト、橋本雄、エルデニ
バートル、向正樹、孫衛国、金甫栳、李命美、ツェレンドルジ、趙阮、張佳 2018.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83 第5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を結ぶ？『一帯一路』の地政学」朱建榮、李彦銘、朴榮
濬、古賀慶、朴准儀 2018.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 84 第11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からみた中国美術史学」塚本磨充、呉孟晋
2019. 5. 17 発行
- SGRA レポート 85 第17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北朝鮮開発協力：各アクターから現状と今後を聞く」
孫赫相、朱建榮、文晔鍊 2019. 11. 22 発行
- SGRA レポート 86 第59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3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7
世紀東アジアの国際関係ー戦乱から安定へー」三谷博、劉傑、趙珖、崔永昌、鄭潔西、荒木和憲、
許泰玖、鈴木開、祁美琴、牧原成征、崔姪姫、趙軼峰 2019.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87 第6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の高等教育のグローバル化!？」
沈雨香、吉田文、シン・ジョンチョル、関沢和泉、ムラット・チャクル、金範洙 2019. 3. 26 発行

- SGRA レポート 88 第12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映画交流の可能性」
刈間文俊、王衆一 2020.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89 第62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世界を変える時…?—不都合な真実を超えて」
ルウェリン・ヒューズ、ハンス＝ヨゼフ・フェル、朴准儀、高偉俊、葉文昌、佐藤健太、近藤恵
2019.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 90 第63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4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東
アジア』の誕生—19世紀における国際秩序の転換—」三谷博、大久保健晴、韓承勳、孫青、大川
真、南基玄、郭衛東、塩出浩之、韓成敏、秦方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91 第13回SGRA-Vカフェ講演録「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林 泉忠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92 第13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国際日本学としてのアニメ研究」大塚英志、秦 剛、
古市雅子、陳 龔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93 第14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西思想の接触圏としての日本近代美術史再考」稲賀
繁美、劉 曉峰、塚本磨充、王 中忱、林 少陽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94 第65回SGRA-Vフォーラム講演録「第5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9
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感染症の流行と社会的対応」朴 漢珉、市川智生、余 新忠 2021. 10. 05 発行
- SGRA レポート 95 第19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岐路に立つ日韓関係：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
小此木 政夫、李 元徳、沈 揆先、伊集院 敦、金 志英、小針 進、朴 榮濬、西野 純也
2021. 11. 17 発行
- SGRA レポート 96 第66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6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人の移動と境界・権力・民族」塩出浩之、趙 阮、張 佳、榎本 渉、韓 成敏、秦 方、大久保健晴
2022.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97 第67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誰一人取り残さない』如何にパンデミックを乗り越えSDGs実現
に向かうか—世界各地からの現状報告—」佐渡友 哲、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杜 世鑫、
ダルウィッシュ ホサム、李 鋼哲、モハメド・オマル・アブディン 2022. 2.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98 第15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はいかに作られ、モダンはいかなる変化を生ん
だのか?—空間アジアの形成と生活世界の近代・現代—」山室信一 2022.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99 第68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夢・希望・嘘—メディアと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の関係性
を探る—」ハンブルトン・アレクサンドラ、バラニャク平田ズザンナ、于寧、洪ユン伸 2022.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 100 第2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進撃のKカルチャー——新韓流現象とその影響力」
小針 進、韓 準、チュ・スワン・ザオ 2022. 11. 16 発行

■ レポートご希望の方は、SGRA 事務局 (Tel : 03-3943-7612 Email : sgra@aisf.or.jp) へご連絡ください。

SGRA 레포트 No. 0101

제69회 SGRA 포럼

제7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역사 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

편집·발행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전자 메일: sgra@aisf.or.jp

발행일 2023년 6월 21 일
발행 책임자 이마니시 준코 (今西 淳子)
한국어판 감수 윤 재언 (尹 在彦)
인쇄 (株) 平河工業社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본지 기사에 대한 문의나 인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주세요.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Copying is Prohibited. For inquiries or quotes, please contact us.

SGRA REPORT

SGRA 보고서 한국어판

NO. 101

제 69 회 SGRA 회원
제 7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역사 대중화, 와동아시아의 역사학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ATSUMI INTERNATIONAL FOUNDATION